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가정학 석사 학위논문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에
관한 질적 연구
-2000년 ~ 2019년 중심으로-

A Qualitative Study of Sexuality in the Lyrics of
Korean Popular Songs
-Focused on 2000 ~ 2019-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박혜숙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에
관한 질적 연구

-2000년 ~ 2019년 중심으로-

A Qualitative Study of Sexuality in the Lyrics of
Korean Popular Songs

-Focused on 2000 ~ 2019-

지도교수 정민자

이 논문을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 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박혜숙

박혜숙의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송혜림 인

심사위원 박종원 인

심사위원 정민자 인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20년 12월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 1. Sexuality 5
 - 1) 섹슈얼리티의 개념과 사회성 5
 - 2) 탈근대 사회 속의 섹슈얼리티 6
 - 3)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징 7
- 2. 선행연구 고찰 8
 - 1) 섹슈얼리티 관련 연구 8
 - 2) 성 행동 및 성 태도 관련 연구 10
 - 3) 대중가요와 성(性) 관련 연구 12

III. 연구 방법 14

- 1. 연구대상 14
- 2. 연구절차 14
- 3. 연구내용 15
- 4. 조작적 정의 16
 - 1) 성 행동 16
 - 2) 성 태도 17
- 5. 타당도 18

IV. 연구 결과	19
1. 성 행동	19
2. 성 태도	32
3. 2000년~2019년 시대별 섹슈얼리티의 변화	42
V. 논의 및 결론	47
참고문헌	51
부록	55
ABSTRACT	60

표 목 차

<표 1> 연구 분석대상 개요의 주제에 따른 분류(중복포함)	15
<표 2> 분석영역별 코딩 현황	15
<표 3> 성 행동의 하위체계에 따른 분류	16
<표 4> 성 태도의 하위체계에 따른 분류	17
<표 5> Matrix Coding Query Result(Codes by year)	43

그림 목 차

[그림 1] 성적 환상 및 욕망 시대별 분포	21
[그림 2] 남/여 가수 화자에 따른 성적 환상 및 욕망 분포	21
[그림 3] 유혹 시대별 분포	23
[그림 4] 남/여 가수 화자에 따른 유혹 분포	24
[그림 5] 쾌락 지향 시대별 분포	28
[그림 6] 남/여 가수 화자에 따른 쾌락 지향 분포	28
[그림 7] 외도 시대별 분포	31
[그림 8] 남/여 가수 화자에 따른 외도 분포	31
[그림 9] 성 역할 고정관념 시대별 분포	36
[그림 10] 남/여 가수 화자에 따른 성 역할 고정관념 분포	36
[그림 11] 도발적이고 당당한 주체적 여성 시대별 분포	38
[그림 12] 남/여 가수 화자에 따른 도발적이고 당당한 주체적 여성 분포	39
[그림 13] 관계의 헌신 시대별 분포	41
[그림 14] 남/여 가수 화자에 따른 관계의 헌신 분포	41
[그림 15]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한 가요 시대별 분포	43
[그림 16] 성 행동/성 태도(중분류) 분포	44
[그림 17] 성 행동(소분류)분포	44
[그림 18] 성 태도(소분류)분포	45

국 문 초 록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에 관한 질적 연구 -2000년~2019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성(性)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맞이하면서 한국 사회 전체의 성문화와 성 심리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2000년대 한국 대중가요 가사 속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개인의 건강한 섹슈얼리티가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성이 인간 생활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성문화의 사회적 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의 확립과 성인지 감수성의 습득을 위한 전성(全性) 형성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 분석 도구인 NVivo R1을 이용하여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에 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 제공하는 시대별 차트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의 매해 인기 순위의 30위에 해당하는 600곡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 행동의 특성에서 성적 환상 및 욕망은 환상에 대한 표현에서는 설레는 감정들을 부드럽게 감성적으로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지만, 욕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짧은 만남에서도 자신의 욕구를 자연스레 드러내며 성취하려는 적극적인 표현이 나타났다. 여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는 조심스럽게 수동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우회하여 표현하지만, 남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는 적극적이며 직접적인 성 행동을 표현하고 있다.

둘째, 성 행동의 특성 중 유혹과 쾌락 지향에서는 성과 육체에 대한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그대로 드러났다. 성적 쾌락이 주는 황홀한 감정을 몸을 대상화하여 표현하고 쾌락을 탐닉하고 자연스레 성행위까지 상상하게 만드는 과감한 표현들이 나타났다. 여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는 스스로 자기 몸을 대상화하여 자신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욕구를 쟁취하는데 매력적인 몸이 경쟁력으로 작용하여 표현되었다. 남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는 성적인 언어를 유희화하여 상대에게 농담 던지는 듯한 말투로 유혹의 표현을 하거나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여 성적 표현을 상상하게 만들고, 성적 행동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들로 인해 간접 자극을 주거나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성 행동의 특성에서 외도는 현재 사귀고 있는 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두거나 실제로 이중적 교제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상대방에

게 발각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여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는 상대의 외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지만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표현의 곡이 많았다. 반면 남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는 상대의 외도에 대한 상처 받은 마음을 고통스럽게 아파하는 슬픈 감정을 표현하거나 외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과감히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넷째, 성 태도의 특성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에게는 남자이기 때문에 울어서 안 되고, 힘든 것을 내색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남은 가족들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요구하는 표현이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에게는 늦은 나이의 결혼은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사회적 결혼제도의 관습과 남성의 외도는 수용하고 여성의 외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자신에게만 헌신하라는 성 이중기준의 잣대를 요구하는 내용과 여성은 사랑과 성적 표현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어야 참한 여성이라는 차별적 표현이 나타났다.

젠더 이분법의 균열을 다루는 내용으로는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자신의 매력을 도발적이고 당당하게 표현하고 적극적 성적 주체성을 행사하는 내용의 표현들이 나타났다.

다섯째, 성 태도의 특성에서 관계의 헌신은 파트너 각자가 관계에서 얻는 혜택이 관계의 지속을 가치 있게 만들 만큼 충분히 커야 당사자 모두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헌신했으나 당사자 간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져 상대의 헌신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관계가 표현되었다.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친밀감의 표현에 있어 관계의 헌신보다는 유희와 성적 쾌락을 표현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났다.

여섯째, 2000년~2019년 시대별 섹슈얼리티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성 행동과 성 태도의 표현에서 2010년을 기점으로 하여 성 행동의 표현을 나타내는 가사가 성 태도를 표현한 가사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성행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섹슈얼리티가 성적 친밀성을 이루는데 기존의 성적 규범을 넘어설 만큼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성행동의 표현에 있어 성적 환상 및 욕망, 쾌락 지향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는 변화의 요인에는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 성의 쾌락적 기능의 강화와 탈근대로 접어들면서 성에 대한 인식변화, 성적 주체로서 기능하는 여성성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 인간의 섹슈얼리티 형성과 발달은 개인의 성장과 가족 및 사회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음원을 활용하는 청소년의 디지털환경에서 대중가요의 영향력은 강력하다. 이에 성 행동과 성 태도에 영향을 주는 부모나 학교, 친구의 생태체계를 고려한 섹슈얼리티 연구는 추후 계속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주제어: 섹슈얼리티, 성 행동, 성 태도, 대중가요, NVivo R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성(sexuality)은 일상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주제임에도, 오랜 시간은 밀하게 감추어야 하는 금기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한 개인이 태어나 성장하면서 변화하는 몸과 성적 호기심, 욕망과 성적 친밀감 등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안전하다고 여기고 제도 밖에서 야기되는 모든 성적 언행들은 문제시되어왔다. 그러나 성이 인간의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의미 있는 영역으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이 이야기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90년대 이후 경제위기와 80년대 말 정치 민주화 이후 잠재된 일상생활에서의 ‘자유적 요구’(박소진, 2009)를 원천으로 하여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의 변화가 대두되면서 성 담론 과현상을 맞이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한국영화계를 비롯하여 방송계에서는 외설 논쟁과 전통적 보수성의 대립이라는 갈등요소를 드러내며 날 선 대결 구도를 펼치기도 하였다. 그로부터 이십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는 성(性)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각종 젠더(gender)를 폭력화한 이슈가 대한민국을 들쭉여 놓았다. 혜화역 시위를 선동하게 한 ‘H’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 온라인상 유명 유튜버에 의한 ‘비공개 촬영 중 성추행 및 사진유출사건’의 폭로, 유명 걸그룹멤버의 사적 영상유출 및 데이트폭력 사건(‘일명 최종범 사건’) 등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가 2018년 한국 사회에서 떠오르는 가장 뜨거운 사회 이슈였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 2019년에는 가수 승리의 ‘클럽 버닝썬 사태’, 가수 정준영 등 ‘불법 성관계 촬영 및 유포 사건’ (YTN & YTN PLUS, 2019) 이 국민의 공분을 사게 했고, 2020년에는 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제작 유통한 ‘n번방 사건’ (쿠키뉴스, 2020)이 더해졌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성(性)을 매개로 하여 고유한 존엄성을 지닌 한 개인의 전성(全性)을 무너뜨린 행위자가 다름 아닌 대중에게 무한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중가요의 생산자라는 점이다. 대중가요는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문화의 하나로써, 세대를 가리지 않고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 대중가요는 대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노래 가사에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아 표현해야 대중에게 전달된다. 노래 가사의 역할이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가사의 역할은 가사를 통해 듣는 이의 사고와 행동 양식까지 주도하는 것이다(홍보라, 2012).

청소년은 시대적 변화와 사회의 조류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언어적 의미를 생성하는 대중가요의 가사 내용은 가사의 메시지가 전달하는 영향력이 청소년들에게 어떠

한 섹슈얼리티를 형성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대중가요는 자신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대중들은 대중가요를 더욱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버스나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대중가요 가사의 메시지가 여타의 다른 매체에서 전하는 메시지보다 대중들에게 수동적으로 흡수되어 그들의 가치나 사고의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문미진, 최혜진, 1986).

디지털 문화가 유입되면서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기에 접속하여 대중가요를 내려 받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비즈엔터(2016)에 의하면 2014년과 2016년 연령별 음원서비스 이용률을 엠넷닷컴이 자체보유한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10대 청소년의 음원 서비스 이용률이 47.6%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절반에 가까운 10대 청소년이 대중가요를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가요에 나타난 선정적이고 원초적인 가사들은 청소년들의 섹슈얼리티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대중가요 창작자의 생산물인 대중가요를 청소년들이 무비판적인 시선에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때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에서 아직 더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의 건전한 전성(sexuality) 형성 차원에서도 대중가요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든스(1996)는 성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맺게 되는 모든 관계와 사회적 구성에 놓여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섹슈얼리티(sexuality)는 단지 성기적 행동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개인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성적 의미를 갖는다. 모든 사회관계와의 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며, 자연적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또는 ‘계발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대는 갈수록 섹슈얼리티의 단일함보다는 다양함을 추구하는 성적 실천들이 존재하고, 육체와 정체성의 관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조심선희, 2006). 이러한 복잡성에 기인하여 현재 전성(全性)의 형성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한국 대중가요 가사 속에 나타난 섹슈얼리티가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연구는 여성의 성적 주체성과 성적 쾌락, 미혼여성의 섹슈얼리티 형성과정과 미혼남녀 또는 남녀 대학생의 성 행동, 성 태도 등 특정 대상을 제한하여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대중가요를 대상으로 하여 현상에 내포된 의미의 해석을 요구하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된 연구는 전무 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동시대의 대중적인 섹슈얼리티의 특성을 질적 연구분석으로 해석한다는 접근은 매우 의미 있다고 사료 된다.

인간의 성 행동은 친밀감을 표현하는 하나의 감정이며 수단이다. 그리고, 성은 친밀감의 욕구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우리는 가족을 형성함에 있어서 성을 제외할 수 없다. 또한, 남녀관계에서 부부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성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족과 섹슈얼리티는 부부관계가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여 자녀출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이다. 가족학 안에서 연구되는 섹슈얼리티의 중요성은 한 개인이 형성한 건강한 전성(全性)

이 사랑과 결혼, 그리고 가족을 이루는데 있어서 하나로 기제로 작용하는데 중요한 측면을 가진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개인의 건강한 섹슈얼리티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이 인간 생활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성문화의 사회적 정화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아울러 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과 성인지 감수성의 습득을 위한 전성의 형성 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중가요 가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가사에 나타난 섹슈얼리티가 개인의 성 행동과 성 태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섹슈얼리티는 어떠한가?

1-1. 성 행동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1-2. 성 태도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1-3. 2000년~2019년 시대별 섹슈얼리티의 변화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Sexuality

1) 섹슈얼리티의 개념과 사회성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는 서양에서 성(sex)과 성적인 것(the sexual)으로부터 차용된 것으로 1800년대 생물학과 동물학에서 기술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처음에 섹슈얼리티의 개념은 생물체가 성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지칭하였지만, 점차 섹슈얼리티에 대한 생물학적인 의미가 축소되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의미가 증가되는 경향성을 갖게 되면서 성이 사회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시각적인 전환을 가져왔다(남영주, 옥선화, 2000). 즉, 섹슈얼리티의 개념을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가 욕망의 차원을 넘어서는 인간의 성 행동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인간의 태도, 사고, 감정과 가치관, 꿈과 환상, 행동 등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성(全性)적인 것으로 생물학적 성의 의미와 사회문화적 성의 의미를 포함한 심리, 사회, 문화적 요소를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정민자, 2013). 그리고 양해림 외(2001)는 섹슈얼리티를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를 첫째, 사회적 영역으로 성적 욕망과 심리, 실천들, 정체성과 이데올로기, 제도와 관습에 의한 규정. 둘째, 정신적 영역으로 여성, 남성으로서 자신에 대한 의식. 셋째, 역사적 영역으로서 성적인 중요성을 갖는 개인적 사회적 삶의 측면에 대한 개념. 넷째, 정치적 영역으로 섹스에 관한 생각, 일부일처, 독신제도 등의 성적 행위 또는 사회적 관행과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로 자신을 규정하는 성적 경향성과 정체성, 성적 욕망과 성적인 관계로 섹슈얼리티의 요소를 세분화하였다.

19세기 말 후기 자본주의의 등장과 과학의 발전에 기반한 섹슈얼리티가 생물학적 재생산과 분리됨으로써 사적 영역에서 자율성과 인정의 획득을 위한 사회적 관계의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김기성, 최유준, 2014). 성을 고정불변의 본질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각각의 사회문화, 역사적 상황에 의해 언제든지 변화 가능한 유동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제프리 워스(1986)는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성이란 자연적 지형과 사회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저항적 에너지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성의 형태와 신념, 이데올로기와 행동들의 가변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억제와 발산, 억압 대 해방이라는 이분법적 입장에서 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지양한다. 미셸 푸코(2004)는 섹슈얼리티가 근대가 만들어낸 독자적 역사구성물로서 성별, 인종, 연령, 규범과 제도에 의해 다양하게 구성된다고 보았다. 결국, 섹슈얼리티는 고정된 본질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놓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구성된다고 하였다. 사회구성물로서의 섹슈얼리티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 섹슈얼리티가 유동적이고 가변적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2) 탈근대 사회 속의 섹슈얼리티

근대화와 도시화 이후, 열정적 사랑에서 시작하여 자아정체성을 바탕으로 서로 간의 신뢰를 획득하며 헌신을 약속하고 결혼에 도달하는 과정을 소위 낭만적 사랑이라고 한다. 18세기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확대 가족의 연대가 약해지고 결혼을 위한 친밀성의 서사가 대두되었다. 루만(Lummann, 1998)은 이를 친밀성의 코드화라고 부른다(추병식, 2015). 이러한 사랑이 근대에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산업사회에서 남성은 공적 영역을 담당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 가사와 정서를 담당하는 성별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사랑, 성, 결혼은 하나로 일치되었다. 이러한 사랑 혁명의 결과물인 근대의 낭만적 사랑은 그 안에 본질적인 가부장적 요소가 문제로 나타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상품경제원리와 그로 인해 물상화된 의식이 강해지면서 인간이 상품시장의 원리에 의해 통제를 당하게 되는 ‘탈(脫)근대’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Beck(2007)은 탈근대로의 전환을 설명하면서, 근대사회의 이원적 구조가 균열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탈근대란, 여성의 성찰적 개인주의화로 인해, 성별 분업이 성별 갈등으로 변질되면서 인간관계에서의 위험이 확산되는 사회이며, 사랑과 성을 포함한 사적 영역에서 개인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간다.

기든스(Giddens, 1996)는 탈근대의 사랑을 합류적 사랑이라 이름 짓고, 평등을 전제로 하여 자아개방과 신뢰를 중요시하며 만남과 헤어짐에 능동적이라 하였다. 합류적 사랑은 성적 개방의 언급에 있어 피임술 ‘조형적 섹슈얼리티(Plastic sexuality)’가 인간관계 변화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탈근대에 이르러 생식과 성이 분리되면서, 성은 사랑의 표현이며 쾌락의 성취로 강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성과 재생산의 분리가 여성에게 성적 해방을 가져다주었고, ‘자율’이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체의 경제적 권력적 의미가 제외되는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이지연, 2002). 순수한 관계란 외적인 관계에 기대하지 않고 관계의 자체 속성에 의해 유지되거나 변화되는 관계이다.

Illouz(2012)는 탈근대 사랑의 경쟁과 유통에 있어 성적 매력이 경제적 능력처럼 독립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성은 사랑의 감정, 결혼과 분리되는 경쟁 그 자체로 유통의 대상이 된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처럼 성적 매력이 불평등으로 작용된다. 자유로운 경쟁과 유통의 대상이 된 성으로 인해 남성은 얼마든지, 파트너의 선택에 있어 초연함으로 대응하며 헌신을 꺼리고, 사랑과 결혼의 선택을 미룬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은 임신과 출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신중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출산의 능력과 성적 매력 또한, 젊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탈근대의 젠더 체제가 남성에게는 더 많은 성 경험과 초연함을, 여성에게는 성적 매력

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사랑으로 인한 상처받을 가능성이 또한 많아진다.

Illouz(2012)의 감정 불평등 개념은 Beck(2007)과 Giddens(1996)의 탈근대의 사랑에 대한 비교와는 다르다. 벡과 기든스의 여성의 개인화와 평등한 남녀의 신뢰와 쾌락추구는 양성평등의 개념에 가깝다고 한다면, 일루즈의 감정 불평등은 초연한 남성을 향해 적극적 도발을 하고 그로 인한 상처는 결국 여자가 감당해야 하는 젠더 체제의 불평등을 의미한다(추병식, 2015).

3)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징

한국 사회의 90년대는 다양한 사회변화 현상들로 인해 성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였다. 1990년대를 지나오면서 한국 사회는 전면적으로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1997년 IMF 구제금융 요청을 하면서 경제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경제적 위기를 계기로 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유지되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는 가정의 실적을 불러왔고 이로 인한 가정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서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98년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매월 7만에서 39만 명씩 증가하는 양상¹⁾을 보였다. 가부장제의 위기로 인한 남성의 성 역할 위축은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를 불러일으켜 여성의 위상과 기존 성 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정한솔, 2013).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확대되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게 되면서 가족 내의 성 역할 분리현상은 점차 와해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위기의 영향이 사회 전역으로 파급되면서 자살률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 고령화 인구의 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의 지표들이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암울한 시대상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들과는 대조적으로 소비자본주의에 힘입어 각종 소비전략은 개인의 과시욕을 추켜세우고 성 상품화를 전략적으로 내세우며 이를 다시 소비자본주의의 확산을 불러일으키는 순환적인 형태로 이어졌다. 성이 상품의 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 상품의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중요하게 되면서이다(다음백과, 2020). 자본주의는 모든 사물을 상품화하여 교환가치의 극대화를 시도하는데, 이를 위해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성적 욕망이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성 상품화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대중매체와 전자매체의 발달로 인한 상품 광고와 소비전략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성을 이용하여 이윤을 증대시키고 자본을 확장하는 형태로 나타났다(정천기, 2002).

탈근대로의 변화를 맞이하면서 사회·문화 곳곳에서 주제를 달리하여 ‘성’이 논의되고 이슈화되었다. 대중문화평론가 김창남(1998)은 “80년대 말 이후 권위주의 체제가 부분적으로 와해되면서 금융주의에 기반한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숨겨

1) 동아일보, 1998.6.20. 제 23면

왔던 성적 욕망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신세대로 문화의 중심이 이동되면서 육체를 통한 자기표현의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였다. 1996년 6월 7일 음반 사전심의, 사후처벌에 대한 폐지를 담은 ‘음반 및 비디오에 대한 법률’이 시행(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1996년 10월 31일)이 되면서 대중가요의 선정성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가수 박진영은 선전성의 논란이 된 자신의 6집 앨범 『게임』에 대해 신문 기고²⁾를 통해 “섹스는 즐거운 놀이어야 한다”는 본인 뜻을 밝혔다(정천기, 2002). 대중가요의 마케팅 전략이 성 상품화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문학계에서는 마광수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가 외설 논쟁 시비에 휘말렸고, 영화계에서는 장정일의 소설을 영화화한 『거짓말』이 성의 노골적인 묘사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또 방송계에서는 방송인 홍석천의 커밍아웃 선언과 여자 연예인의 섹스비디오 파문 그리고 남녀를 불문한 연예인들의 누드 화보 열풍 등이 당시 한국 사회에 성 담론의 촉발을 불러온 논쟁적인 사건들이다(정한술, 2013).

이와 같은 9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서 대두된 성 담론은 그 당시 사회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결혼과 가족제도와 관련한 사회·문화적 변화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혼인율 감소와 이혼율 증가, 그리고 비혼율 증가와 만혼의 변화가 초래되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영향으로 인한 육체를 통한 쾌락추구와 자기표현은 성인 비(非)혼 여/남들의 혼전 성과 동거에 대한 섹슈얼리티의 변화로 이어졌다(황인옥, 2007).

2. 선행연구 고찰

1) 섹슈얼리티 관련 연구

인간의 성(性)은 개인이 일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결코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공론화하여 이야기할 수 없는 어려운 주제였다. 그러나, 급변하게 움직이는 현대 사회에서 성(性)은 가장 빠르게 변화를 보이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제로 변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생물학적인 성, 그리고 사회적인 성을 포괄하는 섹슈얼리티(sexuality)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존에 선행되었던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한국학계에서 최초로 섹슈얼리티를 다룬 논문은 1985년이었고, 산업이 고도화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화된 섹슈얼리티가 침투하여 가속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1987년 정치 민주화 이후,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맞으면서 이른바 ‘성 혁명’ 현상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섹슈얼리티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김기성, 최유준, 2014; 박이은실, 2011).

2) 문화일보, 2001.6.26.

남영주·옥선화(2000)는 섹슈얼리티의 연구 경향을 성 행동 및 성 의식, 성 행동 및 성 실패, 성과 관련된 의사소통, 성폭력, 성교육으로 내용 영역별로 정리하였고 가족학에서의 섹슈얼리티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이론적 접근의 적용 가능성과 연구방법론적인 문제에 있어 시각확장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최윤식(2000)은 1900년대 후반 한국영화<정사>, <해피엔드>, <접속>, <인터뷰>를 중심으로 섹슈얼리티와 젠더 이데올로기 연구에서 영화 텍스트에 나타나는 한국의 사회 구조와 남성과 여성의 이념형은 오늘날 사회상황과 맥락을 같이하며 변형되어 반영되고 있다고 하였고,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는 완화되고 더 이상 여성이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박수선·김명자(2004)는 미혼 성인남녀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기초연구에서 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중요성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다양성으로 미래에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 미혼 성인남녀의 섹슈얼리티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광범위한 섹슈얼리티 영역을 사랑과 친밀감, 성 의식과 성행동, 피임과 인공유산, 성교육, 가족 환경의 영향 등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조사한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다고 나타났으며 비록 예전과 비교해서 성에 관한 의식이 개방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별에 따른 이중기준이 성(性)에서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황인욱(2007)은 영화 <처녀들의 저녁식사>, <바람난 가족>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섹슈얼리티와 가족을 연구함으로써 여성도 성적 욕구와 욕망을 지닌 주체적 존재라고 역설하였고, 성적 관계 맺음에 있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영화 텍스트와 현실 사이의 실질적 괴리가 있음에도 영화를 수용하는 관객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영화와 현실은 픽션(fiction)이라는 간극이 있지만 이러한 픽션(fiction)의 재현은 현실과 완전히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영화적 재현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은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임인숙(2008)은 대중가요가 여성의 외모를 차별하며 여성에 대해 ‘육체적 존재’로 제한하는 가부장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이 반영되어 있음을 비판하였다.

한편, 1990년대를 통과하면서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 질서에 편입되면서 이른바 ‘성 혁명’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희영(2010)은 1990년대 중반 신자유주의적 일상에 놓인 한국 사회의 2008년 대중적 섹슈얼리티 담론의 특징과 역할을 대중 종합 여성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는데 세대를 막론하고 능동적인 섹스에 대한 강조와 기존 성 규범을 넘어서는 파트너와의 성적 친밀성이 섹슈얼리티 구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성의 몸을 신자유 주체화의 장소로 정의하고 영원히 늙지 않은 몸과 성적 능력의 재구성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보다 아름답고, 보다 매력적이며, 보다 능력 있는 여성 개인을 주체화시키는 핵심장치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결혼제도 속에 있는 여성과 연애 관계 속에 있는 여성을 공존하는 다수의 다른 여성과 경쟁 구도에 위치시키면서 여성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상정함으로써

써 모든 여성이 성적으로 도구화된 몸이라는 단일한 대상으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정한솔(2013)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영화 여성 의상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이미지를 연구하고 여성 섹슈얼리티 유형을 가부장제, 일부일처제와 같은 기존의 성에 관한 사회적 규범에서의 이탈과 남성화된 여성이나 기존의 성에 관한 사회적 규범에서의 이탈과 기존 성 역할이 전도되어 전통적인 여성성의 해체 현상, 심화된 소비자본주의와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나타난 자본화된 여성의 몸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된다고 결론지었다. 추병식(2015)은 청소년이 향유 하는 사랑의 의미와 그들에게 있어 사랑과 성과 결혼의 연결과 분리에 대한 문제, 양성평등 테제와 관련한 젠더체제의 작동 여부 등을 탐색한 결과 근대적 사랑의 속성이 약하지만,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탈근대의 가부장체제가 강력한 주류의 흐름이 되었고 양성 평등한 개인화된 사랑이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밝혔다. 최경화·박경·정숙정(2019)은 1990년대 이후 성 개방 풍조가 확산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드러냄에 적극적인 성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남녀의 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차이를 발견하고 남자 대학생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경험에 이중적 성 규범에 기반을 둔 성 경험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고찰해 봄으로써 사회적 구성물인 섹슈얼리티가 시대에 따라 변화되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스며들어 개인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서 2000년대 대중가요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에 대한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사람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이해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과 건전하고 올바른 전성(全性)의 형성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성 행동 및 성 태도 관련 연구

현대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활발한 문화교류로 성문화와 성 가치관에서도 과거 보수적 관점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성 태도 및 성 행동이 자유로워지고 있다. 급속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성과 연관된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는 성문화의 흐름 속에 사람들이 가진 성 행동 및 성 태도가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은 본 논문의 연구를 시작하는 것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이에 성 행동 및 성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을 포괄하는 섹슈얼리티(sexuality)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인간의 성 행동은 종족보존의 욕구와 더불어 사랑표현, 긴장 완화, 감정의 이완과 만족감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조승희, 2011). 김향숙(2001)은 대학생들의 성 행동 경험 조사연구에서 70% 이상이 이성 교제를 하고 있고, 이 중 48% 정도는 애무 이상의 성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손애리·천성수(2005)는 대학생

을 대상으로 성 의식, 첫 성 경험 및 성 행동에 대한 성차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혼전 성관계 허용확률이 4.8배 높고, 혼외 성관계 허용확률이 2.2배 높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혼전과 혼외 성관계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취한다고 발표하였다. 장희숙과 조현각(2001)은 데이트 성폭력과 폭력의 허용적 태도가 상관관계에 있다고 연구하였고, Faller(2003)는 성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남성지배의 문화와 남성의 성적 사회화라고 하였다. 이는 남성은 성적 주체로 사회화시키는 반면, 여성은 소극적 금기적 성적 대상화로 사회화시키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성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가 급변하고 성희롱과 성폭력 등 부정적 성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서경현과 이경순(2002)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 30% 이상이 데이트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성 태도는 성욕에 대해 개인이 갖는 일관성 있고 체계화된 사고와 감정 및 행동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우근희, 2011). 태도는 보편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성에 대해 개방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보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보다 혼전에 성을 경험하는 확률이 많다(김남희, 박유진, 정현숙, 2015). 최인숙(2009)은 성 태도는 가정환경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으며 자신만의 주관적 성 태도를 확립한다고 하였다. 인간의 성 태도는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으며 가정과 사회의 상호적 관계를 통해 내면화되고,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에 따라 사회화되는 경향이 있다. 성 태도를 형성하는 사회화는 성장기 환경에서의 경험과 학습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형성된 성 태도는 일생동안 개인의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유연희, 2015).

호선민(2009)의 대학생 남·녀의 성 지식과 성 태도 그리고, 성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 허용도, 혼전 성관계 허용도와 성매매 허용도에서는 남자 대학생이 개방적이었고, 결혼에 대한 자유, 동성애 허용도와 낙태 허용도에서는 여자 대학생이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인식의 차이에서는 남자 대학생은 성을 도구적, 쾌락적으로 인식하고 성 행동에 있어서도 이성 간의 정서적, 애정적으로 보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여자 대학생은 성행위에 있어서 책임감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나타났다(남미애, 2000). 결혼관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도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 남성의 64.19%, 여성의 41.7%가 찬성을 표시해 여성은 가부장제가 사라지지 않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지만 결혼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 진보적 태도가 나타났다(전경숙, 2004).

성 행동과 성 태도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성 태도는 실제 성행동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성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가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개인의 성적 주체성을 행사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 권리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성 행동 및 성 태도 관련 선행연구는 남·녀 대학생이나 미혼 성인 남·녀의 성 행동과 성 태도의 양적 연구에 맞추어져 그들의 혼전 성관계 경험이나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낙태에 대한 허용의 여부를 통해 개방적인가, 보수적인가에 대

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제껏 대중문화의 한 부류인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성 행동과 성 태도에 관한 질적 연구는 전무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바 2000년대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나는 성 행동과 성 태도 특성은 양적 연구가 아닌 질적 연구로서, 대중가요 가사에 녹아있는 섹슈얼리티 현상에 대한 의미를 도출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중가요와 성(性) 관련 연구

대중가요는 대중매체라는 매개체에 의해 전달되면서, 일반 대중들이 단순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노래를 말한다. Shuker(2012)는 대중음악은 다수의 대중이 특정한 음악에 대한 이론과 기법의 정보나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라고 하였다. 사회학적 입장에서 대중음악은 대중을 위한 음악인 것과 동시에 매스미디어 음악 산업을 통해 유통되는 구조를 지닌 음악을 말한다. 따라서, 대중문화에는 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관점 등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로써 사회에 파급되는 효과가 상당하다(김이진, 2007).

대중가요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것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대중들이 수용함으로써 유지되는 하나의 문화로 대중의 욕망과 경험, 사고와 정서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드러낸다(이영미, 1998, 2002; 김창남, 1998; 박애경, 2000). 그 시대의 인기 대중가요들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대중들의 사고와 의지,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또한, 대중들에 의해 널리 유포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왔다(이지연, 2002). 그러므로, 대중가요 가사에 드러난 섹슈얼리티는 그 당시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섹슈얼리티에 관한 행동과 욕망 및 태도가 투사되어 나타난다. 대중가요는 대중의 욕망과 경험, 사고와 정서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드러내고, 분석을 통하여 그 작품들을 향유 하고 수용한 대중들이 인간과 세상에 대해 어떠한 사고와 태도 그리고 정서를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추론해 낼 수 있다(박애경, 2000; 이영미, 1998; 김창남, 1998).

정천기(2002)는 대중가요의 선정성에 관한 연구에서 가수 박진영과 싸이의 노래를 대상으로 하여 대중문화 전반에 확산된 성 상품화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시대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대중가요의 선정성은 영상매체의 발달과 미국 힙합 문화의 유입과 사전심의제도 폐지 등 규제 완화와 음반 시장에서의 상업주의 확산 등에 기인한다고 밝힌바 있다.

백선기, 김남일(2006)은 김건모 노래 가사를 중심으로 한국 대중가요의 ‘남성성’ 변화 추이와 이데올로기적 의미 변천연구에서 기호학적으로 남성성의 변화를 90년대 이후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관해 분석해 봄으로써 90년대 초반에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부장적 남성성이 표출되었으나, 90년대 후반으로 진입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개방적 남성성이 다수 표출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임인숙(2008)은 한국 대중가요의 외모 차별주의 연구에서 한국 대중가요의 가사에

초점을 두고 외모 차별주의의 실태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여성의 육체적 매력을 강조하는 추세를 가부장적 기획으로만 해석하기를 거부하고, 성이 사랑과 결혼 및 재생산과 분리되면서 더욱 관능적이고 쾌락적인 성이 이성애 관계에서 중요시되는 변화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희영(2010)은 90년대 중반 이후 대중매체에서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실현하는 신세대 여성들의 모습 또는 가족관계 내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려는 중년 여성들의 적극적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이혼율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 등의 통계수치가 가부장적 젠더 역할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으로 해석되면서 일상에서 섹슈얼리티 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징표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근거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의 사회특성으로 인한 ‘성 담론’ 과현상이 섹슈얼리티의 변화를 가져와 2000년대 대중가요 가사에 반영될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을 2000년에서 2019년 대중가요 가사로 제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0년대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당시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곡들이 연구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연구분석대상의 대중가요는 음원사이트 멜론(www.melon.com)을 활용하였다. 음원사이트 멜론에서 제공하는 멜론차트 중 시대별 차트 상위 30위에 해당하는 곡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멜론 시대별 차트를 선정한 이유는 2019년 11월 기준 음원사이트 월간 순 이용자 수가 410만명(39.9%)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이용자 수를 기록한 지니뮤직(www.genie.co.kr)의 259만명(25.2%)보다 더 많아서(코리안클릭, 2019)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이연수, 2017). 그리고, 멜론 시대별차트는 팝전문 DJ와 음악전문 자문위원의 음악 분야의 전문적 경험과 방송, 그리고 음반판매 자료를 참고하여 만들어졌기에 다른 음원사이트보다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다(이충상, 2013).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질적 분석 도구인 NVivo R1(박종원, 2020)을 이용하여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에 관해 내용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음원사이트 멜론에서 제공하는 시대별 차트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인기순위 30위에 해당하는 곡을 선정하여 총 600곡(중복포함)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섹슈얼리티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대중가요를 구성하는 주제를 분석하여 섹슈얼리티, 사랑, 이별로 분류하였고, 어떠한 주제에도 해당하지 않는 가사는 기타로 지정하여 총 4가지 주제로 대분류하였다.

섹슈얼리티에 관해 적용한 이론은 양해림 외(2001)이 제시한 섹슈얼리티 네가지 영역중 첫째, 사회적 영역으로서 성적 욕망과 심리, 실천들, 정체성과 이데올로기, 제도와 관습에 의한 규정. 둘째, 정신적 영역으로 여성, 남성으로서 자신에 대한 의식. 셋째, 역사적 영역으로서 성적인 중요성을 갖는 개인적 사회적 삶의 측면에 대한 개념. 넷째, 정치적 영역으로서 섹스에 관한 생각, 일부일처, 독신제도 등의 성적 행위 또는 사회적 관행과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로 자신을 규정하는 성적 경향성과 정체성, 성적 욕망과 성적인 관계로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대분류한 섹슈얼리티를 성 행동과 성 태도로 중분류하고 하위분류를 세분화하기 위해 가사를 집중해서 읽고 분석범주를 구성하여 가사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였다. 가사에 의미 있게 나타나는 단어나 중심내용

을 파악하여 범주화한 주제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소분류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분류한 섹슈얼리티 내용 요소에 해당하는 138곡의 가사 내용을 NVivo R1(박종원, 2020)을 사용하여 코딩하였다.

<표-1> 연구 분석대상 가요의 주제에 따른 분류(중복포함)

	섹슈얼리티	사랑	이별	기타
2000~2004	24	77	77	19
2005~2009	32	82	95	11
2010~2014	50	63	58	18
2015~2019	32	73	57	22
합 계	138	295	287	70

<표-2> 분석영역별 코딩 현황

주제	코딩값
성적환상 및 욕망	108
유혹	22
쾌락 지향	52
외도	21
성 역할 고정관념	54
도발적이고 당당한 주체적 여성	49
관계의 혁신	53

3. 연구내용

섹슈얼리티에 대한 내용분석은 문헌을 참고하여 섹슈얼리티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세분화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관련 연구 동향의 추이를 살펴보고 섹슈얼리티 분석범주를 성 행동과 성 태도로 구분하고 범주에 따른 하위영역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성 행동과 성 태도의 범주에 따른 하위영역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 환상이나 욕망이 가사에 어떻게 표현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남녀에 따른 표현의 차이가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몸을 대상화하여 유혹하고 쾌락을 지향하는 내용이 가사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고 행위 주체에 따른 가사의 표현방식에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외도가 가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남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성 역할 고정관념이 남녀의 성 태도에 있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젠더 이분법의 균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째, 가사에 나타난 친밀감의 관계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여섯째, 2000년~2019년 시대별 섹슈얼리티의 변화를 분석한다.

4. 조작적 정의

1) 성 행동

김미경(2000)은 인간의 성 행동에는 종족보존의 욕구와 더불어 사랑의 표현, 감정과 긴장의 완화, 그리고 만족감 등 여러 가지의 요소가 함축되어 있다고 하였다. 권지현 외(2000)는 키스, 포옹, 이성 교제, 성 충동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 행동의 개념은 키스, 포옹 등의 신체접촉을 하거나 몸을 대상화하여 상대를 유혹하고 성적 흥분을 불러일으켜 성적 욕구를 자아내거나 성적 상상을 하는 등 쾌락추구의 목적이 나타나는 행위를 포함하였다.

성 행동에 따른 하위체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3>과 같다.

<표-3> 성 행동의 하위체계에 따른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조작적 정의
섹슈얼 리티	성 행동	성적 환상 및 욕망	상대를 향해 느끼는 감정의 설레임과 두근거림, 상대를 소유하고 싶다는 성적표현이 나타난다. (예시-“내 가슴을 뛰게 하는 아름다운 그녀”, “나의 마음속의 그녀 내 맘을 간지럽히나봐”, “너도 날 원해”, “너를 갖고 싶어”.)
		유혹	상대를 유혹하기 위해 특정 신체를 묘사한 성적표현과 언어적 표현이 포함된 내용으로 나타난다. (예시-“내 손만 잡으려 말고 날 안아봐”, “내가 거는 최면에 취해 오늘 너를 택했어”, “섹시한 눈빛과 뜨거운 몸짓에 좀 더 다가와”.)
		쾌락 지향	신체를 대상화한 성적표현을 상상하게 하거나, 향락과 성행위를 묘사하는 표현이 포함되어있다. (예시-“내 몸을 적시고 엉덩일 토닥토닥하고 싶어”, “그녀의 매끈한 복근에 얼굴을 부비고 부드러운 나의 다리를 쓸어 올리고 우리의 침대 위는 꼭 어린이 놀이터”, “남녀남녀 나뉘 착석해 음탕한 게임 하더라도 입 단속해”.)
		외도	사귀고 있는 연인이 있음에도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두거나 이중적 교제를 나타내는 표현을 포함한다. (예시-“너 어제 누구하고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때는 언제고 두 번 다시 바람 피지마.”, “너 나 몰래 누구 만나는 끔찍한 그 버릇 못 고쳤니. 뛰어 봐도 손바닥인걸”, “니 옷깃에 묻은 립스틱들 나는 절대 용서못해”.)

2) 성 태도

강희경(1992)은 성 태도를 성에 대한 감정과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제외한 내면적인 마음가짐만을 뜻하고, 성에 대해 갖는 이념과 지각, 그리고 성향을 의미하고, 고효정과 이은주(2007)는 성과 관련된 제반 현상에 대한 의식 및 사고와 가치판단 그리고 행동에 관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 태도의 개념은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관습적 태도와 사회가 권유하는 여성성, 남성성의 성 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답습되고 있는 성 고정관념과 연관된 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고 및 가치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성 태도에 따른 하위체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4>와 같다.

<표-4> 성 태도의 하위체계에 따른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조작적 정의
섹슈얼 리티	성 태도	성 역할 고정 관념	제도와 관습에 의해 이어지는 보수적인 성문화를 나타내거나 외모를 중시하고 가부장적 여성성, 남성성을 표현하는 내용을 나타낸다. (예시-“야한 여자 싫어하고 담배피는 여자 싫어하지요”, 난 너무 키가 작다. 이런 내 모습으로 난 사랑도 할 수 없음을”, 절대 울지 않아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쉽게 마음 주면 안돼”.)
		도발적이고 당당한 주체적 여성	내숭 없이 성적매력을 과시하고 타인의 시선에 눈치 보지 않고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여성을 표현하는 내용을 나타낸다. (예시-“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니가 나라도 이 몸이 부럽잖아. 남자들은 나를 돌아보고 여자들은 따라해”, “나를 바꾸려 하지마. 아니면 차라리 딴 사람 만나. 너에게 날 맞추지마. 너나 잘해”, “세상의 반은 남자, 너 때문에 울지 않아”.)
		관계의 헌신	진밀한 관계유지를 위해 헌신했지만, 상대는 나를 두고 떠나가고, 상대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 없다는 중독된 공의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을 포함한다. (예시-“니가 원한 것은 다했어. 이제와서 싫다면 나는 어떡하라고”, “다른 사람은 절대 안돼. 너 야만 해. 내 모든것을 바쳤지. 원한건 다 사줬지. 하지만 넌 다른 사랑을 찾으려 하네.”)

5. 타당도

타당도는 검사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충실하게 측정하였는지를 나타낸다(성태제, 시기자, 2016). 본 연구의 타당도를 충족하기 위해 연구분석 자료의 분석방법과 분석틀에 대한 기준을 조작적 정의로 제시하고, 자료수집 방법과 분석의 결과가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대중가요라는 공통적인 연구대상을 가지고 사랑, 이별을 주제로 하여 석사 논문연구 진행 과정에 있는 다른 연구자 2인과 함께 지속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 과정을 서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성교육 전문가이며 가족학 박사학위 소유자 2인에게 연구 중간중간 지속적인 피드백과 점검의 과정을 거쳤으며, 전문가인 지도교수의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타당도를 높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타당도를 만족하기 위해 질적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 R1(박종원, 2020)을 도구로 사용하여 자료를 코딩하였다. NVivo R1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이다. 텍스트화된 자료를 단어나, 구, 그리고, 문장 단위로 개별적으로 코딩을 하여 범주를 만들고 이론을 구축하는데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연구대상인 대중가요의 섹슈얼리티를 질적 분석하기 위해 양해림 외(2001)이 제시한 섹슈얼리티의 네 가지 영역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타당도를 구현하였다(Maxwell, 1996).

IV. 연구 결과

1. 성 행동

인간의 성 행동은 생물학적인 차원의 본능을 넘어서 사회와 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며 학습된다. 단순한 종족보존 이외의 친밀감과 온정의 표현, 순수한 쾌락과 같은 정서적 비중이 중요해지면서 자유와 행복 추구의 측면도 강조되어 성적 상호작용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윤가현, 양동욱, 2017).

2000년대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특성에서 성 행동의 특성은 성적 환상 및 욕망, 유혹, 쾌락 지향, 외도로 나타났으며 가사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1) 성적 환상 및 욕망

사고(思考) 기능의 발달로 사람들은 환상을 즐기는데, 가장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성과 사랑에 관한 환상이다. 성적 환상은 자신이 원하는 상대와의 성행위나 낭만적 관계를 이루는 긍정적 내용에서부터 상대방에게 거부당하는 부정적 내용까지 매우 다양하다. 성적 환상은 성적 목표에 대한 강도와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성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많은 사람이 실제 파트너와 성관계 중에도 성적 친밀감을 유지하거나 쾌감을 고조시킬 목적으로 파트너 이외의 타인에 대한 성적 환상을 경험하기도 한다(윤가현, 양동욱, 2017). 환상은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성적 흥분은 행위를 통하여 만족을 얻도록 주체를 움직인다. 성적 환상이 제공하는 흥분은 그 자체로 만족감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물어봐 넌 꿈을 꾸냐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뭐 그리 좋냐고
요즘 내가 무슨 꿈 꾸냐면
Loving you always in loving you
그댄 날 전혀 몰라 준다고 해도
누구라도 이럴까 나에 맘 모든게 새로워
누구라도 이럴까 자그마한 일에도 마음아리는거……
그대가 날 전혀 몰라준다고 해도
그게 몇 년 동안이 가고 나에 꿈은 환상으로
Loving you

<Loving you> 2002, 노래 김현철

위의 노래에서는 가슴을 뛰게 하는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났지만 혼자서 꿈꾸고

설레며 행복해하는 것을 표현하며 비록 환상으로 끝난 사랑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아름다운 설레임을 표현하고 있다.

2004년 동방신기의 <The Way U Are>에서는 첫눈에 반한 상대에게 “너의 생각 네 관심 너의 귀에 달려있던 귀걸이 너의 몸무게 너만의 향기 네 몸짓 모든것 알고 싶어…싫다고는 하지마. 니가 느낀 그대로야. 돌이킬 수 없잖아” 라고 하며 상대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고, <HUG>에서는 “하루만 니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언제까지 네 곁에 연인으로 있고 싶어. 널 내 품에 가득 안은 채 굳어 버렸으면 싶어. 영원히” 라며 상대를 위한 환상은 사물이나 동물에 빗대어 부드럽게 표현하고 욕망은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웬지 끌리는 널 갖고 싶어져……

겉먹지 마 넌 날 위해 지루했던 순간이 나를 보는 순간 달라졌어……

just 10 minutes 내 것이 되는 시간…… 내게 와봐 이제 넌 날 안아봐도 괜찮아……

<10 Minutes> 2003, 노래 이효리

가슴으로 느껴지기에 더욱 더 간절해지는 너라는걸

……널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걸 위해 난 그걸 위해

널 느낄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무엇보다도 너를 위해 난 너를 위해……

<너를 위해> 2004, 노래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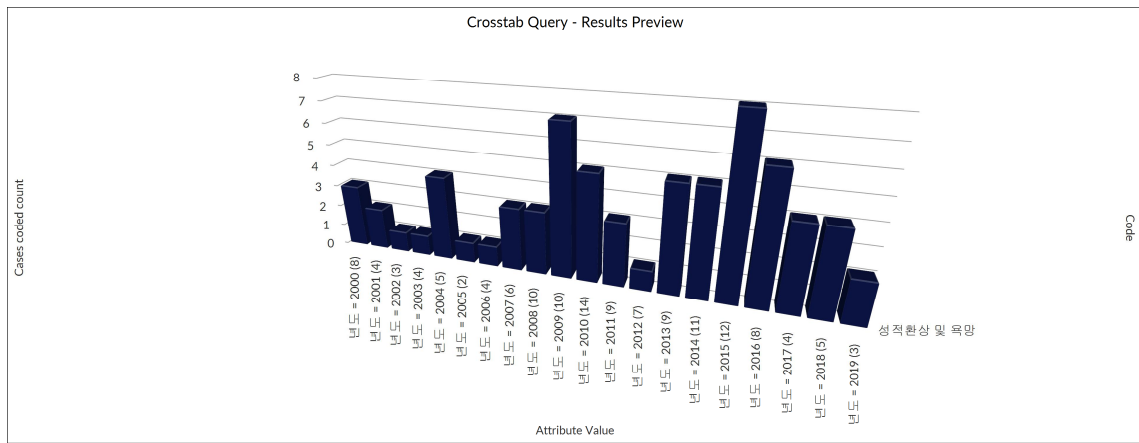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짧은 만남에서도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성취하려는 적극적인 성 행동을 보이는 표현이 나타난다.

여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 성적 환상 및 욕망의 표현은 2007년 원더걸스의 <Tell Me>에서는 “너도 나를 좋아할 줄 몰랐어. 어쩜 좋아. 너무 좋아…나를 사랑한다고 날 기다려왔다고…내가 필요하다고 말해 말해줘요” 라며 남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해 달라고 요구하며, 2009년 다비치의 <My Man>에서는 “갖고 싶은 널 my love 사랑해도 되겠니? 가져도 되겠니? 그래도 되겠니?” 라고 조심스럽게 수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2010년 미쓰에이의 <Breathe>에서 “…내게 빠졌어. 네 생각만 하고 있어. 나를 구해줘 어서”, 2011년 원더걸스 <Be My Baby>에서는 “Watching 계속 바라보며 난 Waiting. 니가 다가오기만을 바래. 어서 내게 와서 나를 데려가 제발” 에서 남자의 적극성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욕망은 우회하여 수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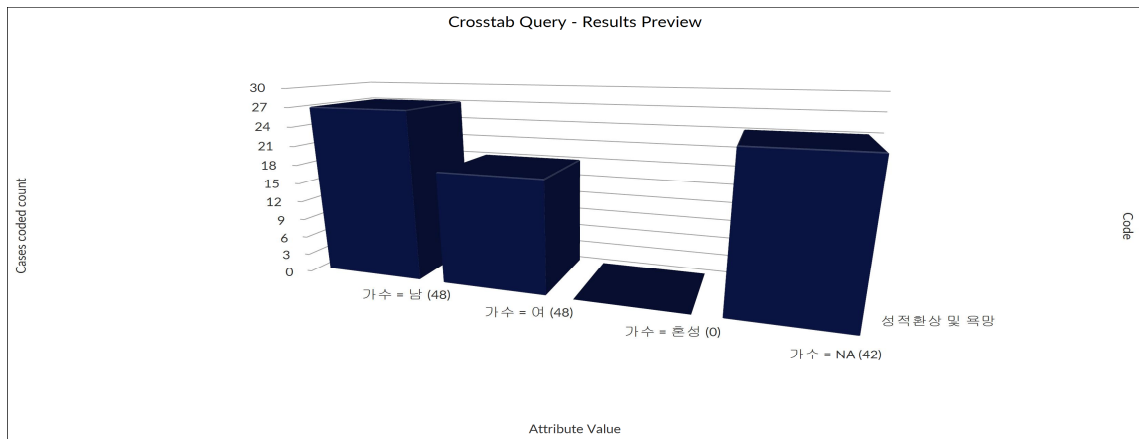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 2000년 DJ DOC <Run To You>에서는 “외로울때 날 불러…너만 원한다면 달려가겠어. 훨훨 날아가겠어…니 맘의 문을 열어 네 안에 네 맘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이 시간을 기다려왔어. 이젠 널 갖겠어”, 2009년 수퍼주니어 <쏘리 쏘리>에서는 “…어딜 가나 당당하게 웃는 너는 매력적…도도하게 거침없게 정말 너는 환상적…내가 내가 먼저 네게 네게 빠져…Hey 이제 그만 내게 와줄래 정말 미칠것만 같아” 라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조금 더 자세히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적극적 행동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1>에서 나타난 성적 환상 및 욕망의 시대별 분포에서 살펴보면, 성적 환상 및 욕망의 표현은 2000년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지위가 상향되고 기존 성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도 욕망의 대상에서부터 벗어나 성적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주체로서 적극적인 행동의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림-1> 성적 환상 및 욕망 시대별 분포



<그림-2> 남/여 가수 화자에 따른 성적 환상 및 욕망 분포



성 행동의 특성 중 성적 환상 및 욕망의 특성을 요약하면, 환상에 대한 표현은 상대를 향한 성적 기대감과 설레임을 사물에 빗대어 부드럽게 표현하였지만, 상대를 향한 욕망의 표현은 욕구를 강하게 드러내며 직설적으로 성취하려는 적극적 표현을 나타내었다. 남녀 가수의 표현방식에서도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남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는 욕망을 적극적으로 성취하려는 욕구가 그대로 나타났고, 여성 가수의 노래에서는 욕구를 표출하되 수동적으로 우회하여 표현하였다.

2) 유혹

9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사랑과 성 혁명이 대두되면서 ‘사랑 없는 성’에 대해 자유로워진 모습에서 젊은 세대에서는 성(性)을 사랑의 표현으로 과장하여 찰나의 순간에도 몸을 대상화하여 성적 유혹을 통한 사랑의 절실함과 성적 욕망을 애절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아래의 곡들은 모두 여성 가수들의 곡으로 자신의 몸을 대상화하여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나를 안아봐”, “나를 가져봐” 라고 유혹하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날 보고 있어 다가오고 있어 내가 보낸 눈빛에 끌려 말을 걸고 빠져들고 있어
내가 거는 최면에 취해 오늘 널 택했어 날 한 번 안아봐 너의 외로운 맘
네 가슴에 모두 말길게 조금씩 서두르지마 좀 더 멋지게 다가와 ……

<둘이서> 2005, 노래 채연

……너를 위한 Show Time 달콤한 초콜릿처럼 녹아든 내게 빠져봐
섹시한 눈빛과 뜨거운 몸짓에 좀 더 다가와
나를 안아줘 Baby one more time
Baby come to me 견딜 수 없어 널 향한 Toxic 핑크빛 립스틱처럼 스며든 내게 취해봐
화장을 고치고 목을 축이며 추는 사람들 때론 tight하게 때론 Art하게 나를 가져봐……
내 가슴속에 수갑을 채워 줄 미로 속으로……

<One More Time> 2008, 노래 슈얼리

“난 몰라 순진한 척 하는 너의 동공 날 니 맘대로 들었다가는 놓고 날 미치게 만들어…그만 좀 건드려 건드려 애매하게 건드려 넌 자꾸 위 아래로 흔들리는 나 확실하게 내게 맘을 보여줘…들었다 봤다 하면서 넌 부리지 끼 부리지 약올리지 말고 내게 확신을 줘 넌…”

상대의 애매한 유혹에 혼란스럽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노래는 2015년 걸그룹 EXID의 <위아래>라는 노래로 성행위 동작을 표현하는 노골적인 안무에 이끌려 관심을 받았는데 육체를 대상화하여 소비하는 대중가요의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로꼬와 화사의 <주지마>라는 노래는 매력적인 상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성(理性)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여자의 마음을 표현한다.

“위험해 아슬아슬해…유혹으로밖에 안보여. 오지마. 내게 오지마. 선 넘지마 Please 주지마. 취하면 너 어떻게 해볼라니까 넌 내게 술을 권하지마…” .

2018년 레드벨벳 <Bad Boy>는 모두가 환호하는 매력을 가진 내가 너 또한 쉽게 넘어오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며 오히려 너무 쉽게는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지 말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알잖아. 요즘 내가 Hot ah ah 날 보는 시선 너도 느껴봐. 홀린 듯 날 따라와.
모두 환호해. 너도 곧… 한 번 내기를 해볼까? 너무 쉽게 오지 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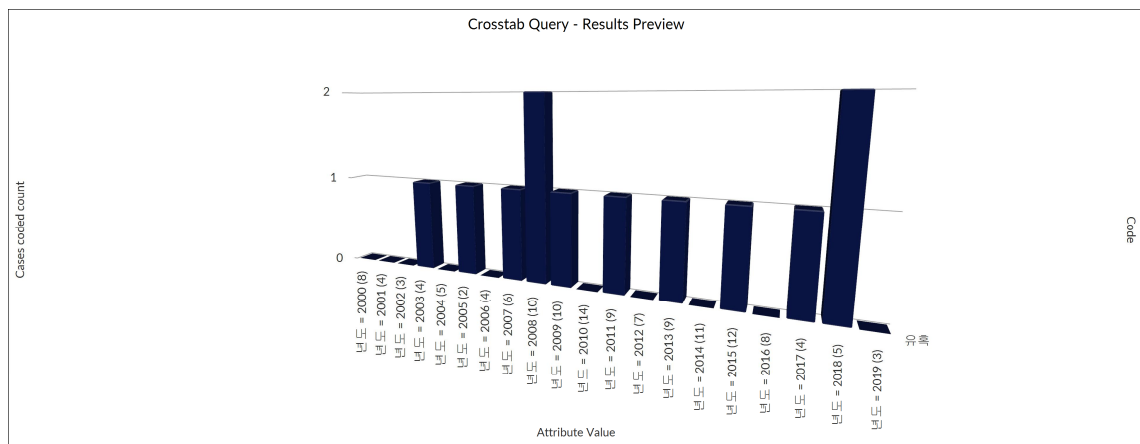
여성 가수나 여성 걸그룹이 자신의 몸을 대상화하고 신체적 매력을 이용하여 상대를 향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유혹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남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 2017년 사이의 <New Face>에서는 성적인 언어를 유희화 하여 상대방에게 농담을 던지는 듯한 말투로 유혹의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다.

“어딜 쳐다보는 거냐고?...왜 널 쳐다보는 거냐고? 궁금해서 설레서 낮설어서 두근두근 워 침착하게 서로서로 살살 알아볼까나? 지금 작업하는 거냐고? 솔직히 yes 그래 yes 오 yes 궁합이 딱인지 살살 맞춰볼까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맞혀 볼까나? 알면 병이야, 어서 나를 따. 너의 맥주병이야. 너의 빵이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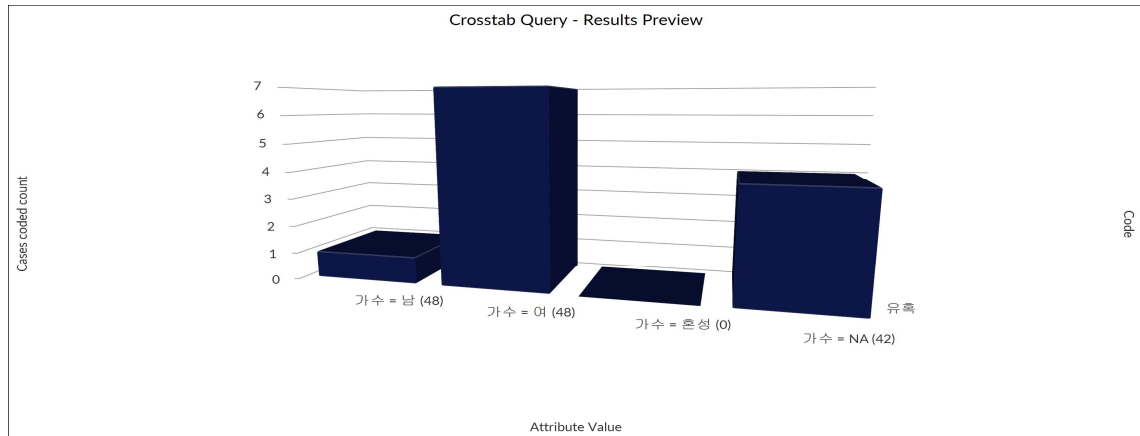
<그림-3>은 유혹의 시대별 분포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2008년은 걸그룹의 관능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유혹을 표현하였고, 그 후로는 평이한 분포를 보이다가 2018년에는 기존 걸그룹의 관능적 이미지와 함께 힙합가수의 곡에서도 유혹을 표현하는 가사가 등장하였다.

<그림-4>는 성 행동의 특성 중 남/여 가수 화자에 따른 유혹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 유혹을 내용으로 하여 성 행동을 표현한 노래는 여성 가수의 곡에서 그 수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성을 사랑과 쾌락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회적 배경과 자신의 매력적인 몸을 자본으로 여겨 사랑과 쾌락을 얻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쟁취하고자 매력적인 몸이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3> 유혹 시대별 분포



<그림-4> 남/여 가수 화자에 따른 유혹 분포



성 행동의 특성 중 유혹을 요약하면, 유혹의 표현을 담고 있는 노래는 여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 많이 표현되었다. 표현방식에 있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대상화하고 관능적이고 매력적인 몸을 자본으로 이용하여 사랑과 욕구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나타났다. 여성이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주체성을 가진 자로서, 몸은 자신들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3) 쾌락 지향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져온 성의 의미변화는 성과 생식의 분리라는 ‘조형적 성’이 일반화되면서 생식 외의 ‘사랑과 쾌락’을 내포하게 되었다. 사랑을 획득해야 하는 과정에서 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는 성적 쾌락 지향이 사랑의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중문화평론가 김창남(1998)은 대중가요에 나타난 성과 육체에 대한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경향이 오랫동안 잠재되어왔던 대중들의 표현 욕구에 문화 자본의 이윤 논리가 더해지면서 심화 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아래의 노래들은 성적 쾌락이 주는 황홀한 감정을 표현하는 곡으로 몸을 대상화하여 쾌락을 탐닉하고 자연스레 성행위까지 상상하도록 하는 과감한 표현들이 나타난다.

……오늘 밤 우린 crazy 오늘 난 너의 lady 불같은 느낌은 on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손길이 스쳐질 때 태양처럼 달아오른 이 시간은 Hot in here
 ……너의 그 부드러운 touch는 마치 티슈 나를 불태우며 녹여 이 뜨거운 키스
 오늘밤 나는 너의 All night love 너를 흠뻑 적셔줄게 소나기처럼
 So follow me mam 어서 니 옷을 벗어……

<톡! 톡! 톡!> 2007, 노래 이효리

널 너무나 사랑해서 난 TV를 꺾어 새빨간 네 입술
 널 너무나 사랑해서 난 커튼을 찢어
 내 눈엔 그 어떤 선보다 아름다운 너의 몸매 때론 몰래 응큼한 상상을 해 그러다 욕심이 솟네
 TV를 보다가도 거리를 걷다가도 시도 때도 없이 난 너를 위해
 못 참아 어떻게 손만 잡아 딱딱하게 말하지 마 네가 날 딱딱하게 만들었잖아
 더 가까이 널 안고 싶어 내 몸을 적시고 엉덩일 톡톡하고 싶어……

<TV를 꺾네> 2011, 노래 리쌍

쾌락적 행복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즐거움일 때가 많다. 짜릿한 감각적 요소와 격렬한 정서요소를 지닌 즐거움으로 원초적 감정들의 하나이다. 황홀, 전율, 오르가즘, 희열, 안락함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즐거움으로 이러한 감정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쾌락 지향에서는 성적표현을 상상하게 만들어 성행위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들로 인해 간접 자극을 주거나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다.

2012년 씨스타의 <나혼자>에는 남자의 뻔한 거짓말에 속아 쾌락의 달콤함을 향유하였으나 이별하고 나서 공허한 마음을 꾸짖는 내용이 나타난다.

“…참 뻔하디 뻔한 너의 그런 빈번한 거짓말에 또 속았어. 아주 값싼 니 미소에 홀린 날 갖고 너 재미있게 놀았어. 이제와서 뭘 어찌겠어. 그리움에 갇혀 나 혼자서 니가 버린 내 맘 공허해. 꼭 버려져 텅빈 거리 같아…”

2015년 빅뱅의 <Loser>에서도 씨스타의 <나혼자>와 같이 쾌락과 향락에 망가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반복되는 여자들과의 내 실수 하룻밤을 사랑하고 해 뜨면 싫증

책임지지 못 할 나의 이기적인 기쁨 하나 땀에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지금…”

남성 가수가 화자인 쾌락 지향의 내용을 표현한 대중가요에서는 2013년 프라이머리 <자니>에서는 권태와 외로움을 표현하고 술을 먹고 난 후의 적적한 외로움을 지난 과거 여자들을 상대로 하여 유희적 즐거움을 추구하려 하거나, 2013년 엑소의 <으르렁>과 2013년 싸이의 <젬블맨>, 2014년 블락비 <HER>에서는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차지한 빼어난 관능적 여성 대상자를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를 쟁취한 우월감을 표현하거나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여 성적 행동을 추구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2017년 지코의 <Boys and Girls>에서는 남자는 돈 걱정 없이 향락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에 초대되는 여성들의 조건을 제한하고 오직 쾌락과 향락적인 상황만을 묘사하고 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2013년 범키의 <미친연애>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대상화하여 쾌락을 추구하고 남성은 오히려 여성에게 수동적인 성적 주체성을 보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도 나타난다.

……술기운이 올라오니 사내놈들끼린 결국 여자 얘기 적적해서 서로의 전화기를 꺼내
 번호목록을 뒤져보지 뜬금없는 문자를 돌려보지
 어떻게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외로워서 그래……
 아 진짜 술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들뜨는지 나도 잘 몰라 나는 왜 그녀들을 부르는지……

<자니> 2013, 노래 프라이머리

..... 아무도 널 못 보게 감추고 싶어
널 노리는 시선들.....그녀 곁에서 모두 다 몰러나
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대.....너무나 완벽한 내 여자라
품속엔 부드럽게 너를 안고 너만을 위해서 나는 난폭해지고
결국엔 강한 자가 얻게 되는 미인.....

<으르렁> 2013, 노래 EXO

.....알랑가몰라 왜 미끈해야 하는건지 왜 새끈해야 하는건지
알랑가몰라 달링 빨리와서 난리해
너의 머리 허리 다리 종아리 말이야 Good feeling Good 부드럽게 말이야.....

<GENTLEMAN> 2013, 노래 싸이

모두 널 작품이라 불러.....
아름다우신 그녀의 자태
주위에 늑대 놈들 주의
자식들 하나같이 외모지상주의.....아찔하게 뺨은 곡선 난 바로 기절.....

<HER> 2014, 노래 블랙비

Don't worry about money
아름다운 여잔 대접받아야 해 아는 친구 불러모아
흥 많고 사교성 좋은 애들로만.....흠뻑 다 젖어 알콜로 샤워해.....
남녀남녀 나눠 착석해 음탕한 게임 해도 밖에서 입 단속해.....
다 망가지는 마당에 고상한 척은 자제해 뜬금없는 일 얘기나 고민상담 따로해

<Boys And Girls> 2017, 노래 지코

.....난 알고있어 까만 밤이 지나면 다시 그에게로 너는 돌아가겠지
나하고 넌 딱 내일 아침까지만 함께 하지
나한테 닿은 몸 안뻗 채
아무것도 모르는 그 놈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내일은 언제보냐 물어
옆에 있는 내가 더 먼 느낌.....

<미친연애> 2013, 노래 범키

남성 가수들의 노래가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여 성적 쾌락을 추구했다면, 여성 가수들의 노래에서는 스스로 자기의 몸을 대상화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2010년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에서는 여성 화자가 상대 남성의 섹시함에 매료되어 상대에게 끌리는 자기 몸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2013년 린의 <오늘밤>에서는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는 방법을 연인과의 성적 쾌락이 자신을 쉬게 하는 안식처라고 표현하고 있고, 2014년 씨스타의 <Touch My Body>에서는 자신의 신체 여기저기를 대상화하여 상대에게 계속 자신을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2014년 걸스데이의 <Darling>에서는

적극적인 성적 행동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사랑을 추구하는 현실에서 자신의 사랑표현에 있어서 어리숙함을 이야기하며 상대에게 좀 더 화끈하고 뜨겁게 자신을 녹여달라는 수동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있다.

……너에게로 꽃혀 끌리는 내 몸이 꽃혀……

Hey come on 오늘밤 꽃혀 버릴 것 같어 나 미쳐버릴 것 같어
오늘밤 들어서 Take it 졸깃한 느낌을 Make it

<너 때문에 미쳐> 2010, 노래 티아라

……요즘엔 지쳤어……섶 곳이 필요해

……오늘 밤 그대 매끈한 복근에 얼굴을 부비부비고 오늘 밤 그댄 부드러운 내 다리를 스프룩 끌어올리고 우리 침대 위는 저 어린애들 놀이터처럼 즐거우면 돼……

<오늘 밤> 2013, 노래 린

I know you want it 넌 내 걸으로 와

내가 준비한 wine 달콤한 chocolate 좀 부드럽고 때론 뜨거워지는 너만을 위한 my pool
……내 입술이 좋아 아님 내 body가 좋아 솔직히 말해 여기 여기
부끄럽게 자꾸 보지 말고 계속 날 안아줘 날 사랑한다 말해줘……

<Touch My Body> 2014, 노래 씨스타

요즘 연인들은 kiss하고 시작한대 사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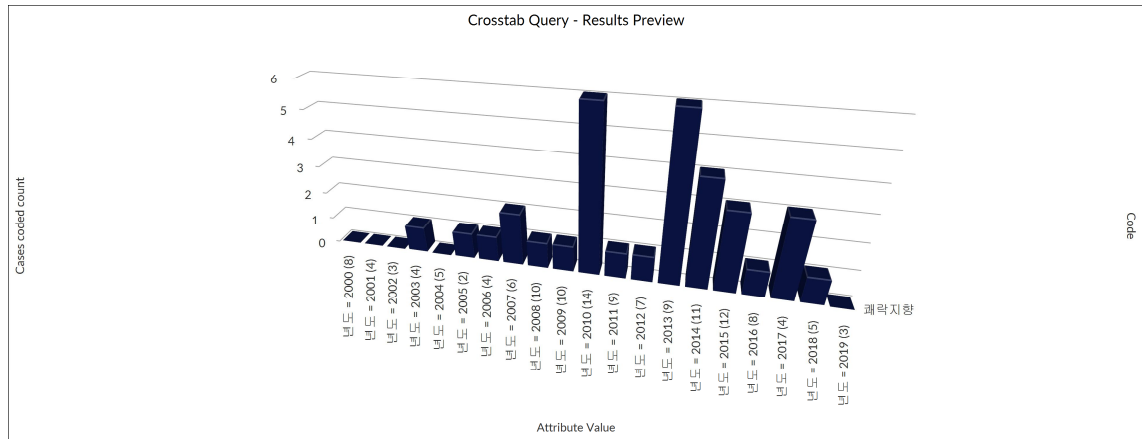
내 맘에 날아 앉아 벌처럼 사랑을 톡 쏘니까 달콤한 유혹에 빠져 난 나를 녹여줘
그댄 달콤해 oh 화끈하게 더 뜨겁게 only you……빠져들고 싶어 니 안에……

<Darling> 2014, 노래 걸스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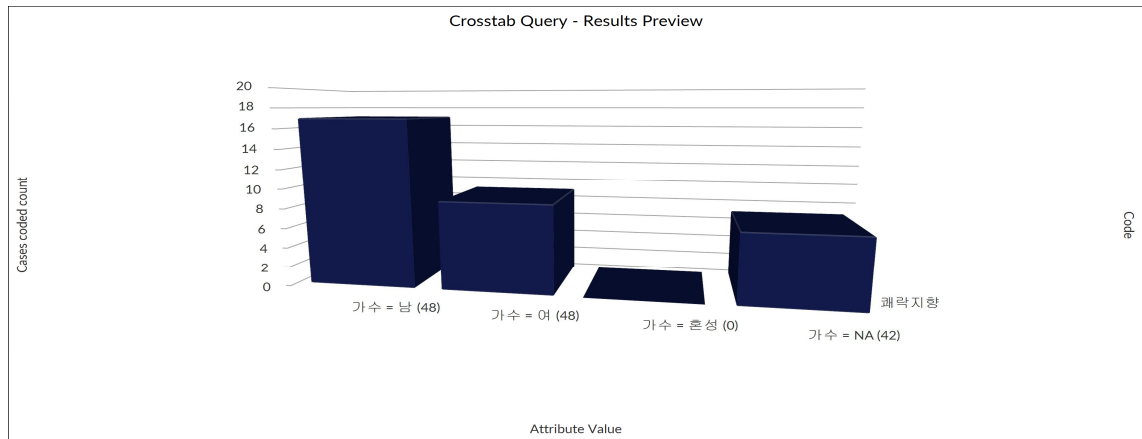
<그림-5>는 쾌락 지향의 시대별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2010년과 2013년도에 집중적으로 쾌락 지향의 곡들이 분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솔로 가수, 걸그룹, 보이그룹의 가수의 형태나, 가수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가수들의 곡에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났다.

<그림-6>은 남/여 화자에 따른 쾌락 지향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로 남성 가수가 화자인 곡이 여성 가수의 곡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남성에게 성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성취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5> 쾌락 지향 시대별 분포



<그림-6> 남/여 가수 화자에 따른 쾌락 지향 분포



성 행동의 특성 중 쾌락 지향을 요약하면, 가사에 나타난 표현들이 성 행동을 자극하게 하는 원초적이고 탐욕적인 내용이었다. 표현된 가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 행위 내용을 상상할 정도의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고 남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 더 많이 표현되었다. 남성에게서는 성취로서의 성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의도

현재 사귀고 있는 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두거나 실제로 이중적 교제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발각이 된 상황에서 사실에 대처하는 상대의 행동이 어떠한지 표현한다.

2008년 다비치의 <사랑과 전쟁>에서는 바람 핀 남자친구에게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자신만을 사랑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2009년 2NE1

의 <I don't Care>, 2010년 소녀시대의 <Run Devil Run>, 2014년 걸스태이의 <something>에서는 미련 없이 바람 핀 남자친구에게 정리하겠다는 경고를 보내는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차이는 있지만, 2012년 에일리의 <보여 줄게>에서는 변심한 애인이 후회하도록 예뻐져서 더 멋진 남자와 만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소극적 주체성을 역설하고 있다.

시끄럽고 어제 너 누구랑 있었어
내가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두 번 다시 바람 피지마 네가 매달려 만난거잖아
어떻게 나누고 딴 여잘 만날 수 있니
이번 한 번 용서해 다시 이런 일 없게 해줄래 이젠 나만 사랑해줄래

<사랑과 전쟁> 2008, 노래 다비치

……니 옷깃에 묻은 립스틱들 난 절대 용서못해
매일 하루에 수십번 꺼져 있는 핸드폰……
다른 여자들의 다리를 훑쳐보는 니가 너무 한심해
니가 어디서 무얼 하던 정말 상관 안해 비켜줄래……

<I don't Care> 2009, 노래 2NE1

사랑보다 호기심뿐 그동안 나는 너 땀에 깜빡 속아서 넘어간거야……
너는 나 몰래 누구를 만나는 끔찍한 그 버릇 못 고쳤니
더는 못 봐 견어차 줄래…… 나를 붙잡아도 관심 꺼들래 더 멋진 내가 되는 날
값아줄게 잊지 마……

<Run Devil Run> 2010, 노래 소녀시대

……흔들리는 표정 말투에 너는 뭔가 있는 듯해
니 몸에 베인 낯선 향기에 뭔가에 홀린 듯해 내 측에 찰리나 봐
…… 왜 덜컥 겁나
이손 봐 나를 속이지 마
뻘한 너의 거짓말 그만 여기까지만……

<something> 2014, 노래 걸스태이

외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는 2008년부터 2015년에 걸쳐 집중되어 있고 남성 화자가 부른 노래는 세 곡으로, 모두 상대의 이중 교제에 대한 상처받은 마음을 노래하는 반면, 여성 화자가 부른 곡은 바람난 연인의 이중 교제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하는데 용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표현의 곡이 많다.

남성 화자가 노래한 2001년 김건모 <Double>에서는 이중 교제를 하는 연인의 값싼 사랑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남성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2010년 CNBLUE의 <외톨이야>에서 다른 사람이 생긴 애인의 변심에 가슴 아파하는 남성의 슬픈 감정을 노래한다. 2010년 2AM의 <잘못했어>에서는 여러 남성에게 추근대는 애인을 둔 남성 화자가 바람기 있는 애인의 성향을 알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차마 못 볼 걸 보고 말았어 ……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 그 곁에 행복해 보이는 너
날 만나도 사랑하고 그를 만나도 사랑하는
값싼 너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슬퍼져……

<Double> 2001, 노래 김건모

봐봐 나를 봐봐 똑바로 내 두 눈을 봐
거봐 이미 너는 딴 곳을 보고 있어……
내가 싫으면 싫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다면
사랑에 슬피하고 사랑에 눈물짓는 외톨이……

<외톨이야> 2010, 노래 CNBLUE

너의 다른 남자들 얘기 안 좋다는 행실들 얘기 자꾸 치근대는 술버릇
내 친구들에게 짓는 웃음 고치라고 그만하라고 아무리 너에게 말해도
미안하다는 말은 다 그때뿐……그만두고 싶은데 잘못된 걸 아는데
난 사랑에 속고도 눈물을 닦고 이럼 안되는데 네게로 가

<잘못했어> 2010, 노래 2AM

2015년 다비치의 <두 사랑>에서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며 어느 한 사랑도 놓칠 수 없다는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곡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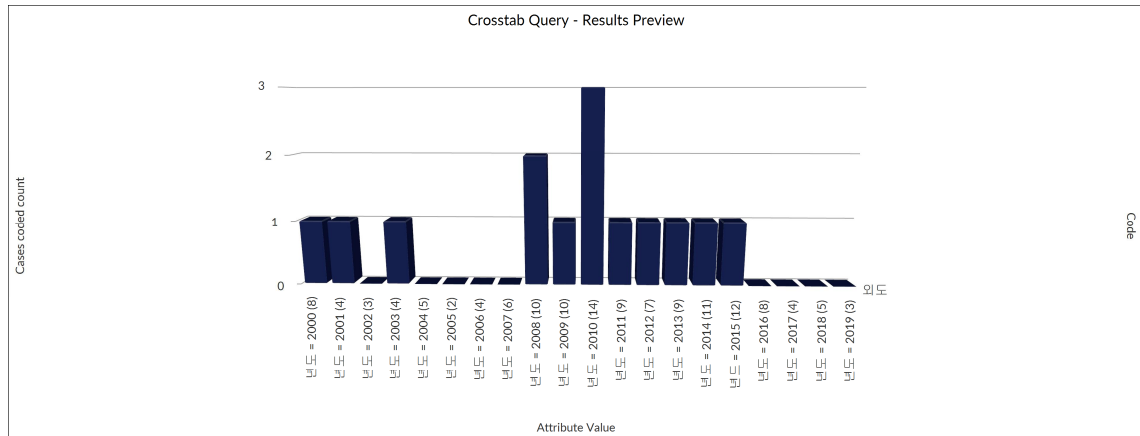
……사랑이란 반드시 한 사람과 하는 거라면서 나를 욕하겠지
두 사람을 미친 듯이 온 마음 다 바쳐서 사랑해……
익숙함과 새로움 둘 사이 둘 다 상처주기 싫어
괜찮아 맘 가는 대로 해 그 맘이 진심이라면 넌 좀 더 이기적이어도 돼

<두 사랑> 2015, 노래 다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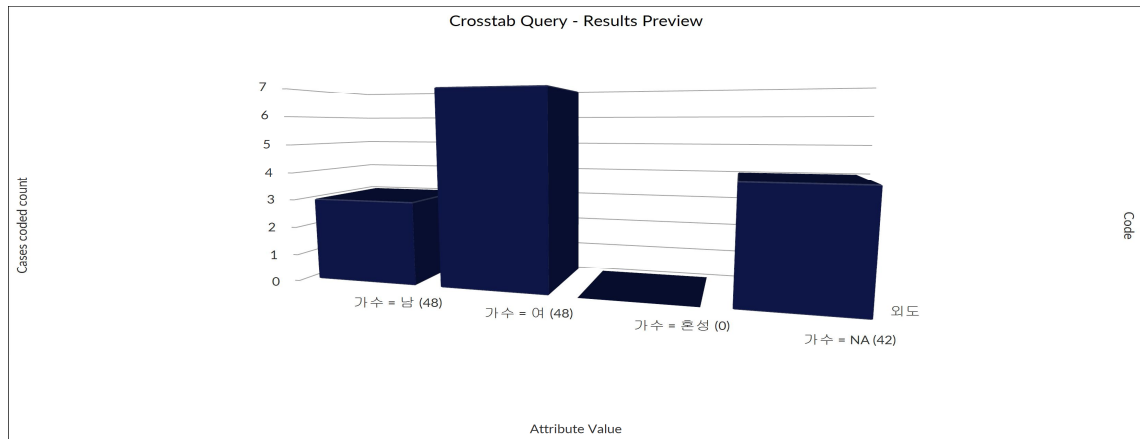
<그림-7>은 외도의 시대별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2010년에 외도를 표현한 곡이 가장 분포가 높다. 이 시기에는 대중가요 중에서도 가요 장르나 가수에 상관 없이 대중가요계에서 성적 유희와 쾌락을 노래하는 곡이 많이 발표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내용을 표현한 곡에서도 성을 탐닉하는 사회적 현상에서 비롯된 외도의 상처를 드러내는 내용도 상대적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외도에 따른 남/여 화자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 <그림-8>에서는 여성 화자의 곡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여성의 관계 지향적인 성과 성취를 추구하는 남성의 쾌락 지향적인 성의 차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처를 여성 화자가 훨씬 더 많이 노래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7> 외도 시대별 분포



<그림-8> 남/여 가수 화자에 따른 외도 분포



성 행동의 특성중 외도를 요약하면, 여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 외도의 내용이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공격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남성의 성과, 관계를 지향하는 여성의 성의 차이에서 발생한 상처를 여성 가수가 더 많이 노래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상대의 외도에 대처하는 태도에서는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의 외도로 인한 성 행동에 상처를 입고 아파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별을 선언하며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남성의 태도에서는 외도로 인한 상처로 괴로워하며 아파하지만,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선택을 결정하지 않는다.

5) 소결

2000년대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특성에서 성 행동의 특성은 성적 환상 및 욕망, 유희, 쾌락 지향, 외도로 나타났다.

성적 환상은 상대를 향해 느끼는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부드럽게 표현하지만, 상대

를 소유하고 싶은 성적 욕구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강하게 드러내며 직설적으로 표현하였지만, 여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는 여성 또한, 성적 주체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표현에서는 남자의 적극성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욕구는 우회하여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데에서 차이가 있었다.

유혹은 신체를 묘사한 성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으로 몸을 대상화하여 사랑의 절실함과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여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 대부분 표현되었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데 있어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도구화하였다는 것에서 여성의 신체가 자본화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쾌락 지향은 향락과 성적 쾌락이 주는 황홀함과 원초적 감정을 성적 행동을 상상하도록 만드는 과감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남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는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여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성 행동을 언어로 그대로 드러내고, 여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대상화하여 쾌락을 추구하는 표현을 보였다.

외도는 상대방의 이중 교제에 대한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하였고, 여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외도는 공격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남성의 성 행동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상처는 여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 훨씬 많이 나타났다. 외도에 대한 사실을 알고 이에 대처하는 태도에서는 여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별을 선언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지만, 남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는 상대의 외도로 인한 상처를 괴로워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성 행동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성 행동은 몸을 대상화하여 쾌락과 욕구를 탐닉하고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성적인 욕구를 성취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여 쾌락을 추구하고, 여성은 자기의 몸을 대상화하여 쾌락을 추구하였다. 몸은 성 행동에 있어서 충분한 자본이 되는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쾌락을 추구하는 성 행동의 특성은 짧은 시간에 서로의 친밀감을 확인하는 기능으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외도로 이어지며 2010년대에는 사랑의 표현과 친밀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몸을 대상화한 쾌락 지향의 성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 성 태도

김연주(2006)는 성 태도를 성에 대한 느낌과 생각 그리고, 가치관과 행동 등 성에 대해 갖게 되는 개인의 내적 신념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성 태도는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환경과 사회문화의 시대적 배경의 영향 속에서 자신의 성 태도를 만들어간다(최인숙, 2009).

2000년대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특성에서 성 태도의 특성은 성 역할 고정관념, 도발적이고 당당한 주체적 여성, 관계의 헌신으로 나타났고 가사를 통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성 역할 고정관념

성 역할 고정관념이란 사람들이 각 성에 대해 갖는 일반화된 신념이나 이미지로 남성이나 여성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특성과 역할의 총체를 말한다(정민자, 2013).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정관념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상에서의 우리의 태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0년대 대중가요를 살펴보면 성 역할 고정관념의 내용을 담은 가사는 <그림-9> 성 역할 고정관념 시대별 분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 시기에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기보다는 꾸준히 시대에 따라 계속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쿨의 <결혼을 할 거라면>에서 “그렇게 버티다간 늘어나는 나이와 잔주름 책잡히는 과거는 왜 만들어 그냥 나를 선택해” 라며 더 이상 이리저리 재지 말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에게 불리하니 빨리 결혼을 결정하라는 사회적 결혼제도에 대한 관습의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2008년 태양의 <나만 바라봐>는 “내가 바람피어도 넌 절대 바람 피지마. 난 널 잊어도 넌 날 잊지마. 내가 다른 여자와 잠시 눈 맞춰도 너는 나만 바라봐” 등 자신은 바람을 피고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애인에게는 언제나 순수하게 남아 자신만을 기다리며 사랑해 달라는 성 이중기준의 잣대를 여성에게 요구하는 이기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다. 남성성의 성 역할 고정관념의 내용을 담은 가사는 2003년 드렁큰타이거 <남자이기 때문에>, 2015년 MINO <겁>에서 남자이기 때문에 울어서도 안 되며 힘듦을 내색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럴수록 더욱 책임감을 지니고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눈물은 태어나 세 번……

절대로 울지 않아 난 남자이기 때문에……내 아내 그녀의 고운 손가락 영원하게
사포보다는 거칠어진 내 주먹에 쥐가 나도 피가 나도 천으로 돌돌 말아 아파하지 않고
용감의 탈로 가려 내 두려움 부드러움과 부러움을 숨긴 채 난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2003, 노래 드렁큰타이거

……멈추지 마 아직 할 일이 많아 뒷바라지 하는 부모님 사진봐

너는 동생들 거울이자 가족들 별 니가 잠을 줄여야 그들이 편하게 숙면

야 이 병신아 티 내지마 마음 단단히 먹어 외롭지만 견뎌야 돼

눈물 흘리나 사내새끼가 똑 그치고 다시 들어 책임감……

<겁> 2015, 노래 MINO

남성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남자의 책임감과 가족을 위해 희생도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여성의 성 역할 고정관념은 사랑과 성적

표현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참한 여성성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 다비치 <미워도 사랑하니까>에서는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맞춰주는 소극적이고 수동적 여성성을 보여주고, 2013년 씨스타 <Give It To Me>에서는 남성을 향해 사랑을 요구하며 애원하는, 사랑에 목말라하는 수동적 여성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트와이스 <CHEER UP>에서는 연애 초기 단계에 여자가 너무 쉽게 보이면 안 된다고 사랑의 표현에 있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내숭을 떠는 여성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성격이 좀 급하고 속 좁은 여자인 걸 알잖아
고치려고 노력도 해볼게 귀찮은 잔소리도 하지 않을게.....
넌 나의 남자이니까 내가 나를 안아줘야 해

<미워도 사랑하니까> 2008, 노래 다비치

.....서른 넘기 전에 결혼은 할지 사랑만 주다가 지친
내 가슴 어떡해사랑을 달란 말야 그거면 된다는 말이야
아무리 원하고 애원해도 눈물로 채워진 빈 자리만

<Give It To Me> 2013, 노래 씨스타

.....여자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돼
그래야 내가 나를 더 좋아하게 될걸
바로바로 대답하는 것도 매력 없어
메세지만 읽고 확인 안 하는건 기본.....
조르지마 어디 가지 않아 되어줄게 너의 Baby.....

<CHEER UP> 2016, 노래 트와이스

성 역할 고정관념이 나타난 가사에서 두드러진 내용은 남녀를 구분할 것 없이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랑이 이루어지는 관계에 있어서 외모가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작용한다. 보잘것없는 외모 때문에 사랑을 아예 단념한다는 2003년 쿨 <백설공주를 사랑한 일곱 번째 난장이>, 아름답지 못한 자신의 외모에 상처받은 마음을 노래한 2011년 2NE1 <UGLY>, 어딜가나 두드러진 외모로 주위의 시선을 끌어내는 자신의 우월한 외모를 과시하는 표현이 2017년 트와이스 <OOH-AHH하게>에서 나타난다. 연인에게 자신의 외모를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외모에 엄청난 노력을 들이는 여자의 끝없는 예뻐지기 위한 노력이 담긴 2014년 박보람 <예뻐졌다>에 이어 2015년 빅뱅 <BAE BAE>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남성을 위해서 시들지 않는 꽃이 되어달라고 하며, 2015년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에서는 여자 몸을 폼평하며 대단한 외모로 키워준 어머니가 누군지를 물어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세상에 외모가 제일이라는 사회적 관습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난 너무 키가 작다

보잘 것 없는 내 모습 때문에

잠시 부족한 나의 모습을 잊어버린 채 감히 내가 그대를 사랑했지만

이젠 알죠 이런 내 모습으로 나는 사랑 할 수 없음을……

<백설공주를 사랑한 일곱 번째 난장이> 2003, 노래 쿨

……나는 예쁘지 않고 아름답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걸까

이 깨진 거울 속 못난 모습을 향해 닦하기만 해

지금 이 느낌이 싫어 나는 어디론가 숨고만 싶어……

<UGLY> 2011, 노래 2NE1

모두 날 가지고 매일 가만 안 두죠

내가 너무 이쁘죠……모두 쳐다보죠 oh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누구냐고 신선하게 말 걸어도 아무 느낌이 안 들죠……

어딜 가더라도 항상 민낯 하지만 내가 제일 빛나

<OOH-AHH하게> 2017, 노래 트와이스

나 예뻐졌대……

바나나 한 개 계란 두 개

정말 피곤해 남들처럼 예뻐지는게

나도 너처럼 사랑받기를 원했어

그래서 더 독하게 예뻐졌다 매일 듣고 싶었던 말

정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달라 모든게 달라졌어……

<예뻐졌다> 2014, 노래 박보람

피가 한쪽으로 또 쏠렸어 네게

위험해

BABY 지금처럼만 아름다워 줄래 넌

너는 시들지 마

이기적인 나를 위해 그 모습 그대로……

넌 그대로 여야만 해 난 예쁜 꽃을 든 남자

모든 이가 사랑할 너란 꽃을 든 남자

<BAE BAE> 2015, 노래 BIGBANG

넌 허리가 몇이니 24요

hips은 34요

……앞에서 바라보면 너무 착한데 뒤에서 바라보면 미치겠어 oh yeah

널 어찌면 널 어찌면 좋니 니가 왜 이렇게 좋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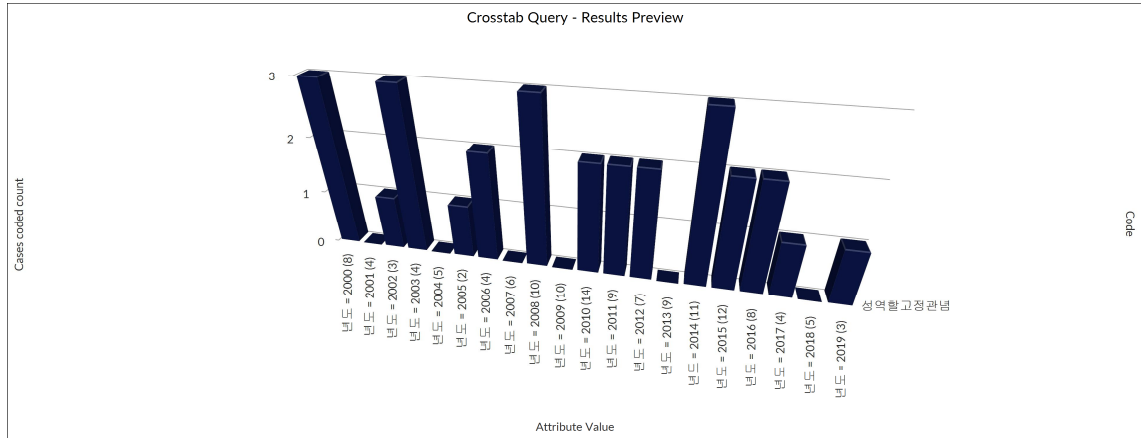
어머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너를 이렇게 키우셨니

<어머님이 누구니> 2015, 노래 박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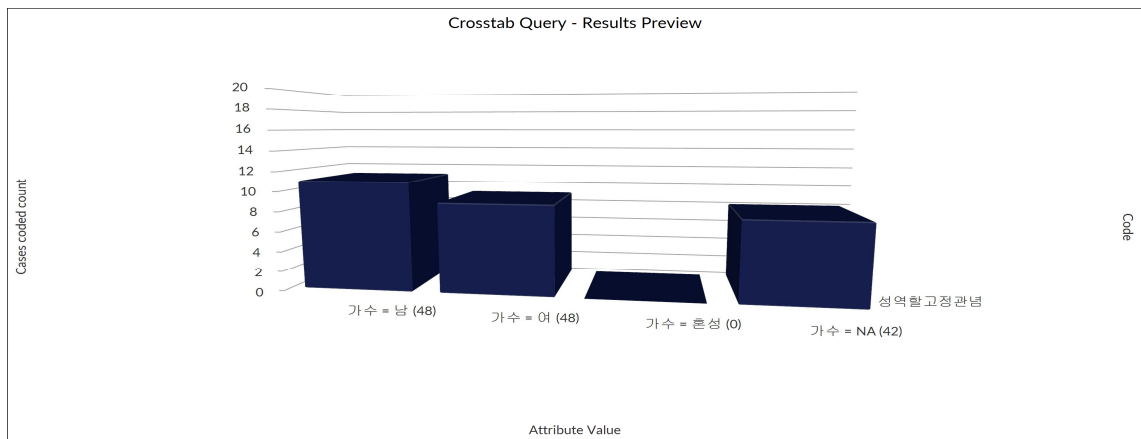
<그림-10>은 남/여 화자에 따른 성 역할 고정관념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로 남/여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 <그림-9>에서 알 수 있듯이 시대가 변해도 성 역할 고정관념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고른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남/여 모두 사회가 요구하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9> 성 역할 고정관념 시대별 분포



<그림-10> 남/여 화자에 따른 성 역할 고정관념 분포



성 태도의 특성 중 성 역할 고정관념을 요약하면, 남성에게 요구하는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았으며, 여성에게 요구하는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는 결혼과 연애에서 소극적이고 참한 여성성을 요구하는 표현이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성 이중기준은 여성에게 더 많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임인숙(2008)의 선행연구, 한국 대중가요의 외모 차별주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성 역할 고정관념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고른 분포를 보이며 대중가수들에 의해 대중들의 의식에 자리하고 있다. 다양성을 요구하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남녀에게 요구되는 성 이중기준의 잣대는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도발적이고 당당한 주체적 여성

탈근대는 여성의 성찰적 개인주의화로 인해 사랑과 성을 포함한 사적 영역에서 개인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가고, 기든스(Giddens, 1996)는 성과 재생산의 분리가 여성에게 성적 해방을 가져다주었고, ‘자율’이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경제적 의미가 제외되어 외부적인 관계에 바탕을 두지 않고, 관계 본연의 자체 속성에 의해 유지되거나 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하였다. 전통적이고 수동적인 여성들의 성 태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만 젠더 이분법의 균열을 보이는 표현이 여성의 성 태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자신의 매력을 도발적이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성적 주체성을 가진 적극적인 여성들의 표현과 이별에 대처하는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태도가 가사에서 표현된다.

2009년 카라 <미스터>, 2017년 마마무 <넌 is 뭔들>에서 성적 주체성을 가지고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당당한 여성들의 성 태도가 나타난다.

2009년 포미닛 <Hot Issue>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슈를 일으키는 자신의 매력을 내숭 없이 거침없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과시하고 있다.

……hey 거기 mister 여길 좀 봐 그래 바로 너
내 옆으로 와 이젠 날 봐봐 한참 바랬어 이름이 뭐야……
맘에 드네 자꾸 조금 과감해지네 쿵닥쿵닥 가슴만 자꾸자꾸 뛰어가

<미스터> 2009, 노래 카라

Come on 거기 미스터 이리와 봐
천천히 아주 조금씩
Hey 거기 미소가 예쁜 남자 바로 너
나를 미치게 하는 그런 남자 몸매도 얼굴도 시선강탈

<넌 is 뭔들> 2017, 노래 마마무

머리부터 발 끝까지 Hot Issue
내 모든 것 하나하나 Hot Issue……
원하면 따라 와봐 내 스타일 따라 해봐……
당당한 난 항상 Hot Issue……

<Hot Issue> 2009, 노래 포미닛

적극적이고 당당한 자신 있는 태도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여성들의 자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샴 <잘됐어>, 2010년 2NE1 <go away>, 2011년 씨스타 <So cool>에서는 이별에 슬퍼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 이별을 받아들이고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이별을 알리는 연인에게 꺼져 달라는 적극적인 태도로 맞서는 모습이 나타난다.

……솔직히 생각하면 내가 아까워 너의 사랑이 되는건……
 차라리 잘 됐어 널 지워줄게 난 떠나갈래 Goodbye 세상엔 반은 남자

<잘됐어> 2000, 노래 샵

……누가 누구랑 헤어져 니가 나랑 헤어져
 나 없이 잘 살아봐 yeah……
 집착 없이 사라져 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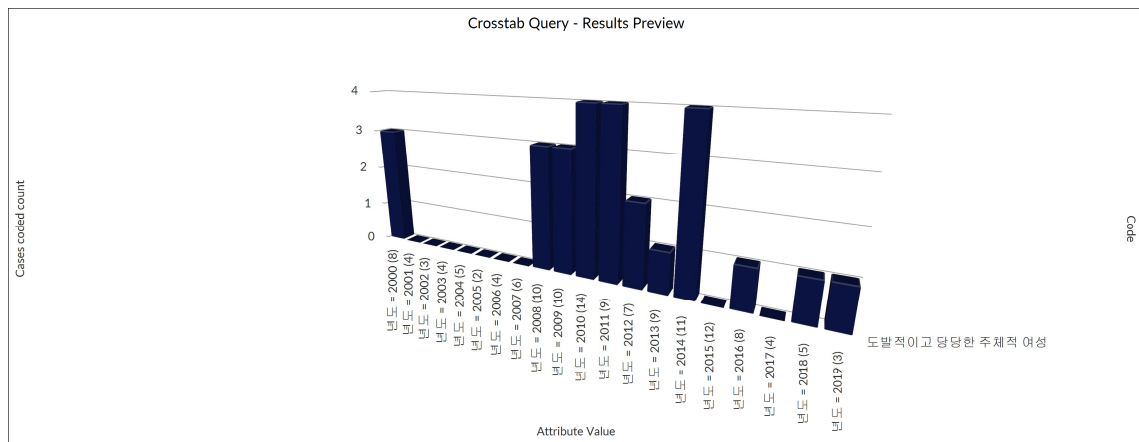
<Go Away> 2010, 노래 2NE1

……세상의 반 반이 남자
 너 때문에 나 나 울지 않아
 구차하게 너를 잡거나 매달릴 일은 절대 No……
 이제 더 쿨해질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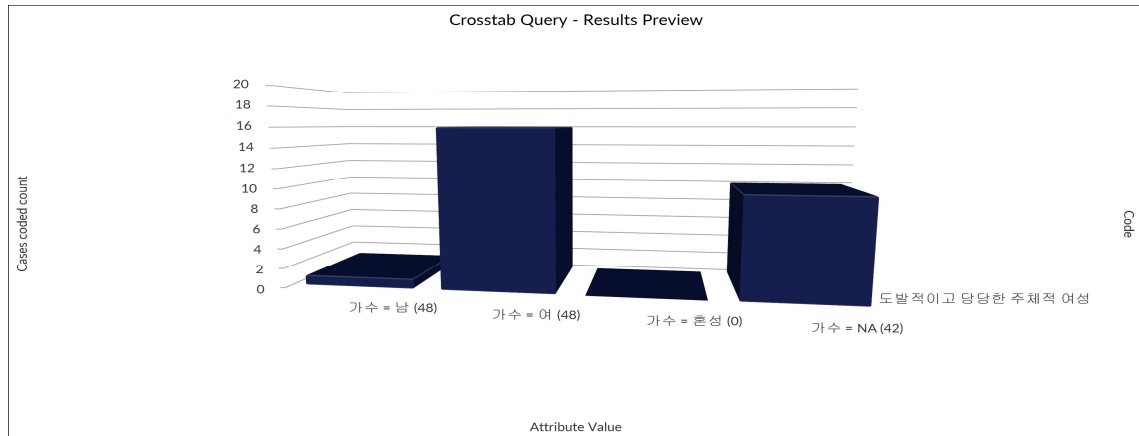
<So Cool> 2011, 노래 씨스타

<그림-11>은 도발적이고 당당한 주체적 여성을 표현하는 노래의 시대별 분포 그래프이다. 2008년에서 2014년은 대중음악에서 걸그룹이 전성기를 맞이한 때와 맞물리는 시기로 대부분 도발적이고 당당한 주체적 여성의 내용을 표현한 노래는 걸그룹의 노래가 솔로 여성 가수의 노래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그림-11> 도발적이고 당당한 주체적 여성 시대별 분포



<그림-12> 남/여 화자에 따른 도발적이고 당당한 주체적 여성 분포



성 태도의 특성 중 도발적이고 당당한 주체적 여성성을 요약하면, 자신의 성적 매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또한,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에서도 남성보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미련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단호한 선택을 결정하는 주체적인 태도가 가사에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러한 태도는 양성평등을 나타내는 태도라고는 말할 수 없고, 자신의 성적 주체성을 행사하고 표현하면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성적 관계 맺음에 있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주체성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관계의 헌신

합류적 사랑은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 즉 관계 외적인 것에 의존치 않고 관계 자체의 내적 속성에 따라 유지되고 변화되는 것이라 하였다. 순수한 관계란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언제라도 깨질 수 있기에 관계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헌신이라는 것이 따라줘야 한다. 그러나 언젠가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에 헌신을 약속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계가 중독적인 공의존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면 상대에 대한 집착에 빠져 개인의 자율성을 상실하는 과정을 일으키게 된다(기든스, 1996).

2000년 컨츄리꼬꼬 <오! 가니>에서는 원하는 것은 다 해주며 헌신했는데 이제서 싫다고 하며 떠나가는 상대를 위해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2002년 jk 김동욱 <미련한 사랑>에서는 관계의 헌신에 구속받지 않고 헌신을 위해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는 상대방의 태도에 언젠가는 떠나갈 연인과의 이별을 예상하며 관계에 대한 헌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남성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고, 2004년 SE7EN <열정>은 상대를 위해 모든 걸 바치고 아낌없이 다 주었지만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가는 상대를 향해 나의 헌신이 상대의 헌신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불평등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2007년 씨야의 <미워요>에서는 평생을

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하고 관계가 중독적 공의존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떠나간 상대가 밋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니가 원한 것은 다했어 하늘에 별도 따다줄만큼
네가 이제서 싫다면 난 어떡하라고
오 가니가니 나를 떠나가니 날 떠나 가다니
나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었잖아
다시 날 사랑해줘 다시 돌아와줘 진정 사랑했다면
영원히 너와 단 둘이 살고 싶어.....

<오! 가니> 2000, 노래 컨츄리 꼬꼬

너는 아무렇지 않은 듯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말하지
마치 언제라도 날 떠나버릴 수 있을 것처럼.....
나는 널 떠나 보낼 자신이 없어.....
알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
널 내가 모르는 아주 먼 곳으로
너를 데려갈까봐.....

<미련한 사랑> 2002, 노래 jk 김동욱

내가 죽는 날까지 너만 사랑할래
다른 사람은 절대 안돼 너 야만해
나 모든것 다 바쳤지
원하는것 다 사줬지
하지만 넌 모르지 너에게 난 오로지 친구 이상은 아니고
다른 사람 만나려 하네 다른 사랑 찾으려 하네

<열정> 2004, 노래 SE7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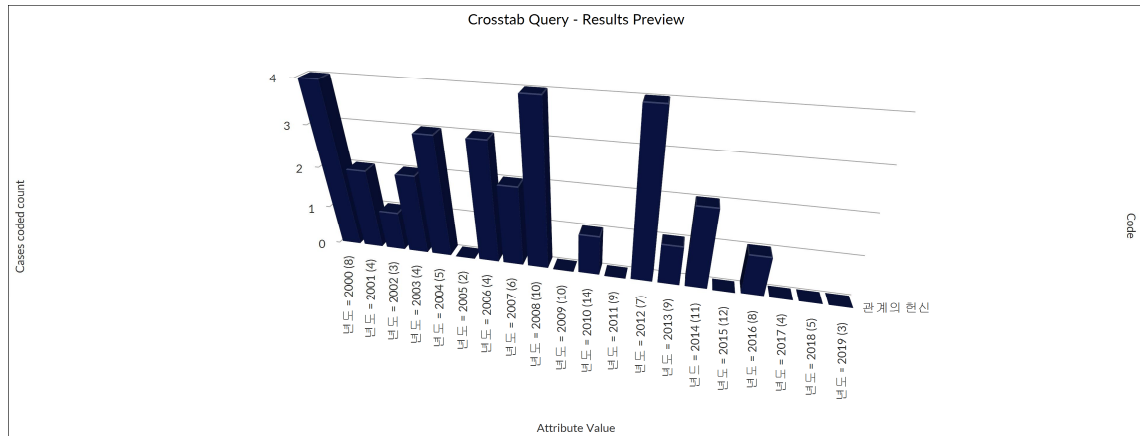
평생을 나만 사랑한다 해놓고
평생을 나만 바라본다 해놓고
나 그땐 이토록 사랑하게 해놓고
안녕이란 말 없이 떠나간 그대가 미워요.....

<미워요> 2007, 노래 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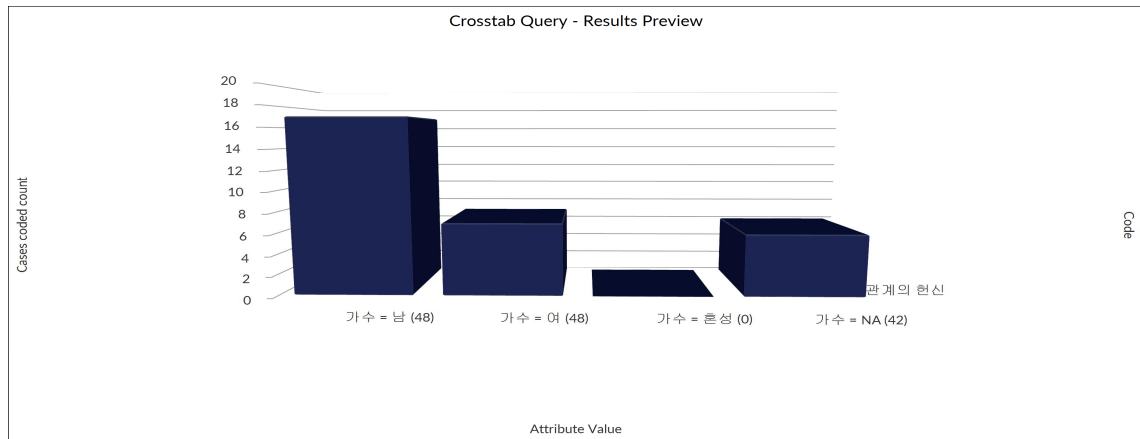
순수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 주는 것은, 파트너 각자가 관계에서 갖는 혜택이 관계의 지속을 가치 있게 만들 만큼 충분해서 당사자 모두의 인정이 기반이 된다. 관계가 지속하기를 바라며 헌신을 했으나, 당사자 간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 사람에 의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기에 관계의 지속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했던 상대는 그만큼의 상처와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림-13> 관계의 헌신 시대별 분포에서 나타나듯이 관계의 헌신을 다루는 내용이 2000년에서 2012년 이전에 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친밀감의 유지를 위해 관계의 헌신보다는 친밀감의 표현으로 2012년 이후에는 유혹과 성적 쾌락을 표현하는 내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3> 관계의 헌신 시대별 분포



<그림-14> 남/여 화자에 따른 관계의 헌신 분포



성 태도의 특성 중 관계의 헌신을 요약하면, 관계가 지속하기를 바라며 헌신하였지만, 서로 간의 가치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깨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내용이 나타났다. 중독된 공의존 관계에서는 상대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개인의 자율성마저 상실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친밀감이 유지되는 쾌락 지향적인 특성이 나타나기 전 2000년대 초반에 주로 나타났다. 남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관계를 지속하기를 바라며 헌신하는 대상이 남성이 많았고, 대부분 중독된 공의존 상태로 상대에 대한 집착으로 다시 돌아와 달라는 내용으로 표현되었다.

4) 소결

2000년대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특성에서 성 태도의 특성은 성 역할 고정관념, 도발적이고 당당한 주체적 여성성, 관계의 헌신으로 나타났다.

성 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에게 요구되는 관습적인 성 역할에는 사랑과 결혼에 있

어서 젊은 나이가 유리하게 작용하고 너무 쉽게 남자의 구애에 반응하는 것 또한 매력이 없으니 조신하고 참한 여성성을 가지라고 표현하였다. 남성에게 요구되는 성 역할에는 남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성 이중기준은 여성에게 더 요구되었으며, 성 역할 고정관념은 남녀 모두에게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나타났다.

도발적이고 당당한 주체적 여성성에서는 자신의 성적매력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태도를 표현하는 내용이 나타났다. 이러한 표현이 양성평등을 나타내는 내용은 아니고 성적 관계 맺음에서 자신의 결정을 주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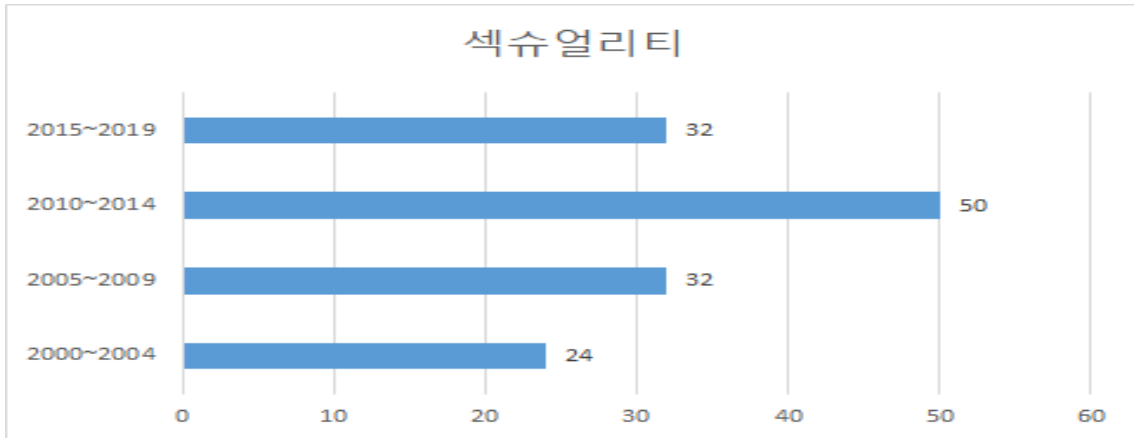
관계의 헌신에서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서 헌신했지만, 상대는 나의 헌신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고 떠나가는 상황에서 불평등한 관계와 상대 없이 살 수 없는 공의존 상태에 놓이게 되는 헌신의 위험성을 표현하고 있다.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성 태도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시대가 변화하고 여성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성적 주체성을 행사하는 적극적 성 태도를 가진 여성성이 표현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성 이중기준이 작용하고 있고 여성에게 이 기준은 더 적용되어 나타났다. 관습적인 성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의 고정관념에 있어서 남성 또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친밀감을 이어가는 수단에 관계의 헌신이 작용하였고, 이러한 태도는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관계의 헌신이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남성의 태도는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개인의 자율성을 상실하는 중독된 공의존 관계에 빠지기도 하였다.

3. 2000년 ~2019년 시대별 섹슈얼리티의 변화

<그림-15>는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한 가요의 시대별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2000년대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서 섹슈얼리티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노래는 2010년에서 2014년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2010년대는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성적 이미지가 범람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소비 자본주의의 결합으로 성에 대한 상품화가 무분별하게 이뤄졌다. 또한, 이 시기에 대중음악은 빅뱅, EXO, 방탄소년단 등과 같은 걸출한 아이돌 그룹과 걸그룹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으로 흥행을 이루면서 대한민국의 음악이 전 세계시장을 뒤흔들던 시기로 각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가요시장의 등용문이 되면서 각광을 받던 때로 2000년에 비해 대중음악이 질적, 양적으로 성장을 보이는 시기였고 이로 인하여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곡들이 많이 생산되었다.

<그림-15>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한 가요 시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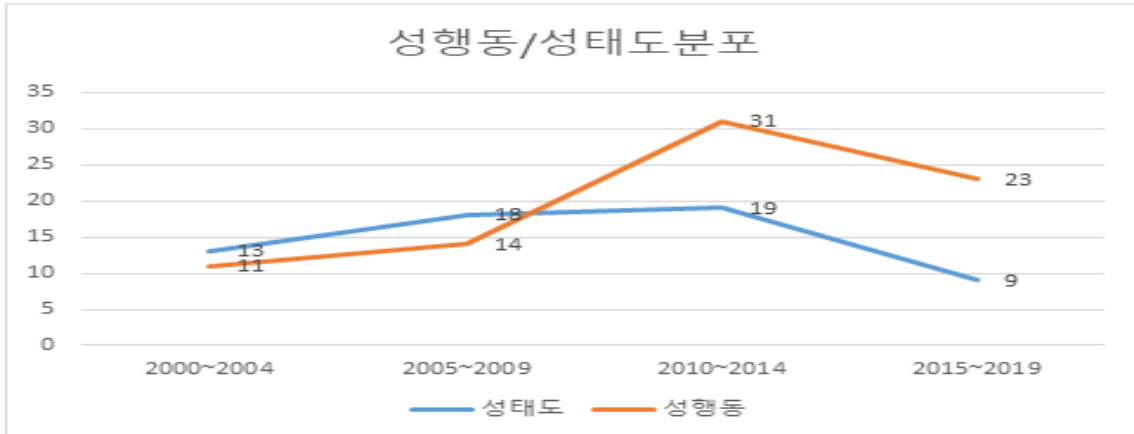
<표-5> Matrix Coding Query Results(Codes by year)

주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 섹슈얼리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성태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관계의 현신	4	2	1	2	3	0	3	2	4	0	1	0	4	1	2	0	1	0	0	0
4: 도발적이고 당당한 주제적 여성	3	0	0	0	0	0	0	0	3	3	4	4	2	1	4	0	1	0	1	1
5: 성역할고정관념	3	0	1	3	0	1	2	0	3	0	2	2	2	0	3	2	2	1	0	1
6: 성행동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성적환상 및 욕망	3	2	1	1	4	1	1	3	3	7	5	3	1	5	5	8	6	4	4	2
8: 외도	1	1	0	1	0	0	0	0	2	1	3	1	1	1	1	1	0	0	0	0
9: 유혹	0	0	0	1	0	1	0	1	2	1	0	1	0	1	0	1	0	1	2	0
10: 쾌락지향	0	0	0	1	0	1	1	2	1	1	6	1	1	6	4	3	1	3	1	0
	14	5	3	9	7	4	7	8	18	13	21	12	11	15	19	15	11	9	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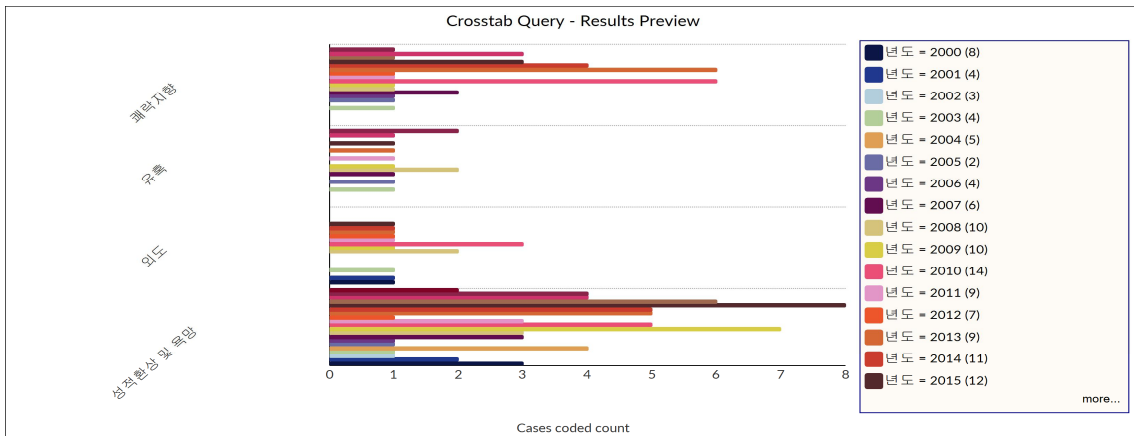
<그림-16>은 시대별 성 행동/성 태도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2010년 이전까지는 성 행동과 성 태도를 표현한 가사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성 행동의 표현을 나타내는 가사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성행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섹슈얼리티가 상대와의 성적 친밀성을 이루는데 기존의 성적 규범을 넘어설 만큼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17>은 성 행동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2000년대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성 행동의 특성에서 성적 환상 및 욕망과 쾌락 지향의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 성의 쾌락적 기능의 강화와 탈근대로 접어들면서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여성들 또한, 성적 욕망의 주체로 기능하는 것이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16> 성행동/성 태도(중분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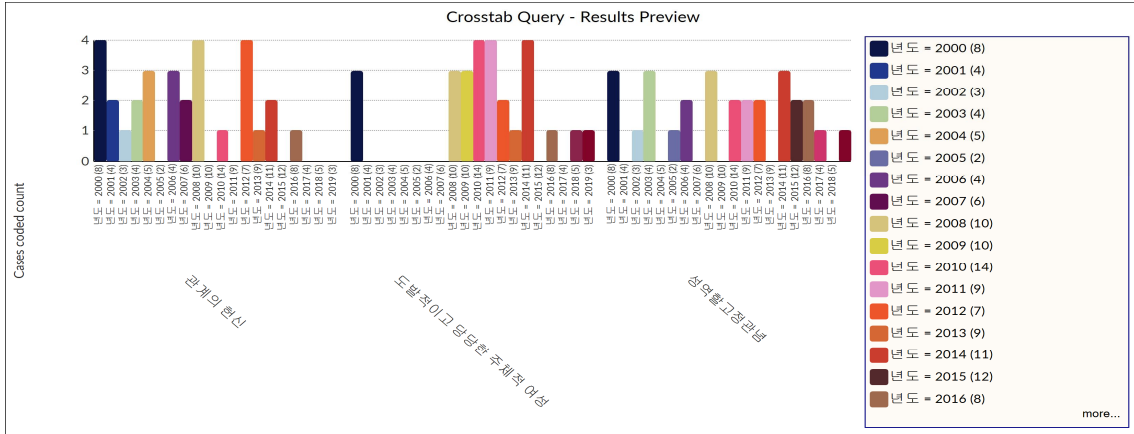
<그림-17> 성행동(소분류)분포 그래프



<그림-18>은 2000년대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성 태도의 분포를 나타낸다.

성 역할 고정관념은 시대에 따라 뚜렷하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꾸준히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도발적이고 당당한 주체적 여성성을 가진 성 태도가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가사에 많이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교육기회의 증대로 인해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기존의 여성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고 여성들 또한, 자신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이 대중가요 가사에도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림-18> 성 태도(소분류)분포 그래프



2000년에서 2019년 시대별 섹슈얼리티의 변화를 소결하면, 2000년대 한국 대중가요 가사를 2010년을 기점으로 전(前)과 후(後)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2010년 후의 대중가요 가사에서 섹슈얼리티를 노래한 곡이 2010년 전의 대중가요 가사보다 훨씬 더 많았다. 성 행동과 성 태도 분포에서도 2010년에 이르러 성 행동을 표현한 가사가 성 태도를 표현한 가사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상대와의 친밀감을 교류하는 방식이 성 행동 중심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 행동의 특성에서도 2010년도를 기점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성의 쾌락적 기능이 강화되어, 성적 환상 및 욕망과 쾌락을 지향하는 특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 태도의 특성에서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표현한 내용이 시대가 변하면서도 꾸준히 표현되고 있고, 도발적이고 당당한 주체적 여성성을 표현한 가사는 2010년도에 많이 표현되어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들이 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보이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표현하고 성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특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 행동의 특성에서 유희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가사는 여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 많이 나타났고, 쾌락 지향을 노래한 가사는 남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은 남/여 모두에게 쾌락과 욕구를 탐닉하는 행위로서 작용하고, 몸을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일치하였지만, 여성은 스스로의 몸을 대상화하고 또한 자본으로 삼고 있으며, 남성은 여성을 몸을 대상화하여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둘째, 성 태도의 특성에서 외도의 행위자는 남성으로 많이 나타났지만, 이를 노래한 화자는 여성 가수가 더 많이 표현하였다. 결국, 성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성은 관계 지향적인 성향을 추구하고, 남성은 공격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성을 추구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성은 적극적이며, 성취적인 성 행동으로 인해 외도를 저지르는 빈도가 많았지만, 관계의 헌신에서는 서로

간의 가치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떠나가는 상대를 위해 아쉬워하고 매달리는 수동적인 성 태도를 보였다. 이별을 받아들이는 남자의 성 태도가 여자보다 훨씬 슬픔에 못 견디고 공의존적인 상황에 빠져 자율성을 상실하는 자세가 많이 나타났다. 셋째,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사랑을 표현하고, 성적 친밀성을 맺어가는 과정이 성 행동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양상에는 개인의 성적 욕구 실현과 쾌락을 추구하는 성적 주체성이 성적 규범을 넘어설 만큼의 강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질적 분석 도구인 NVivo R1을 이용하여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에 관하여 내용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음원사이트 멜론에서 제공하는 시대별 차트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인기순위 30위에 해당하는 곡 600곡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 행동의 특성에서 성적 환상 및 욕망은 환상에 대한 표현에서는 설레는 감정들을 부드럽고 감성적으로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지만, 욕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짧은 만남에서도 자신의 욕구를 자연스레 드러내며 성취하려는 적극적인 표현이 나타났다. 여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는 조심스럽게 수동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우회하여 표현하지만, 남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는 직설적으로 적극적인 성 행동을 표현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여성도 성적 욕구를 가진 존재로서 기능한다고 하였고, 자신의 몸을 자본으로 여겨 적극적이고 도발적이며 당당한 주체적 여성성을 나타내는 가사가 많이 등장하였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직접적이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조심스럽게 우회하여 수동적으로 표현하면서, 오히려 상대 남성에게 적극성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는 표현이 나타났다. 이러한 성 행동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들의 성 태도를 사회가 요구하는 성 이중기준으로 제어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성 행동의 특성 중 유혹과 쾌락 지향에서는 성과 육체에 대한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그대로 드러났다. 성적 쾌락이 주는 황홀한 감정을 몸을 대상화하여 표현하고 쾌락을 탐닉하고 자연스레 성행위까지 상상하게 만드는 과감한 표현들이 나타났다. 여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는 스스로 자기 몸을 대상화하여 자신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욕구를 쟁취하는데 매력적인 몸이 경쟁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여성도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는 최윤식(2000)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성도 성적 욕구와 욕망을 지닌 주체적 존재임을 역설하고 있다. 남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는 성적 언어를 유희화 하여 상대에게 농담 던지는 듯한 말투로 유혹의 표현을 하거나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여 성적 표현을 상상하게 만들고 성적 행동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들로 인해 간접 자극을 주거나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홍보라(2012)는 노래 가사의 역할이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가사의 역할은 가사를 통해 듣는 이의 사고와 행동 양식까지 주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문미진과 최혜진(1986)은 언어적 의미를 생성하는 대중가요의 가사 내용은 가사의 메시지가 전달하는 영향력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섹슈얼리티를 형

성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비즈엔터(2016)에 따르면 엠넷닷컴이 자체보유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2014년과 2016년 연령별 음원 서비스 이용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10대의 음원 서비스 이용률이 절반에 가까운 47.63%를 차지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유희와 쾌락에 의한 원초적 성 감각만을 내세우는 대중가요 가사에 무한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대중가요가 그들의 섹슈얼리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가요 생산자는 노래 가사를 창작할 때 청소년의 성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감각적이며 원초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는 배제하고 가사를 창작하는 것에 있어서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성행동의 특성에서 외도는 현재 사귀고 있는 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두거나 실제로 이중적 교제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드러난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여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는 상대의 외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지만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표현의 곡이 많았다. 반면 남성 가수가 화자인 노래에서는 상대의 외도에 대한 상처 받은 마음을 고통스럽게 아파하는 슬픈 감정을 표현하거나 외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과감히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성 태도가 나타났다.

Illouz(2012)에 의하면 감정 불평등은 초연한 남성을 향해 적극적 도발을 하고 그로 인한 상처는 결국 여자가 감당해야 하는 젠더 불평등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오히려, 남성이 상대의 외도에 대처하는 자세에서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남성은 성에 대한 방향성이 공격적이고 강한 쟁취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망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실제로 과감히 표현하는 태도를 보인다. 외도에 대한 성 행동에서도 공격적이고 쾌락을 지향하는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외도를 저지르는 행위의 빈도가 남성에게서 훨씬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처하는 성 태도에서는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유지할지, 단절할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선택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남성의 성 행동과 성 태도의 차이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성 태도의 특성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에게는 남자이기 때문에 울어서도 안 되고, 힘든 것을 내색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남은 가족들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요구하는 표현이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에게는 늦은 나이의 결혼은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사회적 결혼제도의 관습이 나타났다. 남성의 외도는 수용하고 여성의 외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자신에게만 헌신하라는 성 이중기준의 잣대를 요구하는 내용과 여성은 사랑과 성적 표현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어야 참한 여성이라는 차별적 표현도 드러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성에 관한 의식이 개방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별 이중기준이 성(性)에서는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외모를 중시하

는 가치 기준이 여성에게 더 많이 적용되고 있는 가사의 표현도 임인숙(2008)의 여성을 육체적 존재로 제한하여 여성의 외모를 차별하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젠더 이분법의 균열을 다루는 내용으로는 도발적이고 당당한 주체적 여성성의 표현이 등장하면서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자신의 매력을 도발적이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적극적 성적 주체성을 행사하는 내용의 표현들이 나타났다.

가사의 내용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당당함과 우월감을 과시하고 성적 주체성을 가진 여성임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Beck(2007)과 Giddens(1996)가 언급한 여성의 개인화와 평등한 남녀의 신뢰와 쾌락추구라는 양성평등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고, 성적 관계 맺음에 있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모습으로만 보여진다.

다섯째, 성 태도의 특성에서 관계의 헌신은 파트너 각자가 관계에서 얻는 혜택이 관계의 지속을 가치있게 만들 만큼 충분히 커야 당사자 모두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헌신했으나 당사자 간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져 상대의 헌신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사랑과 친밀감의 표현에 있어 관계의 헌신보다는 유혹과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났다. 사랑과 친밀감을 맺어가는 과정에서 상대를 위한 기다림과 헌신, 정서를 나누는 형태는 사라져 가고 빠르게 사랑을 요구하고,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서로의 몸을 대상화하는 유희적 형태를 추구하는 양상으로 성과 사랑의 형태가 변모해 가고 있다.

시대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모든 것이 발전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성에 대해 갖는 인식은 예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들이 위와 같은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의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디지털 기기가 디지털 성범죄를 유발하는 도구가 될 줄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오랜 시간을 만나면서 정서를 나누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원초적 성 욕구에 이끌려 쉽게 몸을 대상화하여 관계를 맺는 방식들이 인간의 정체성과 고유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시대별 섹슈얼리티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성 행동과 성 태도의 표현에서 2010년을 기점으로 하여 성 행동의 표현을 나타내는 가사가 성 태도를 표현한 가사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성 행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섹슈얼리티가 성적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성적 규범을 넘어설 만큼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성 행동의 표현에 있어 성적 환상 및 욕망, 쾌락 지향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는 변화의 요인에는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 성의 쾌락적 기능의 강화와 탈근대로 접어들면서 성에 대한 인식변화, 성적 주체로서 기능하는 여성성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0년에서 2019년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섹슈얼리티는 시대 상황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여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신체를 대상화하여 성적 욕구와 쾌락을 추구하는 현상들이 빈번히 많아졌고 친밀감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랑과 정서적 충족은 배경으로 사라지고 전경에는 성적 행위의 만족이라는 원초적인 욕구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쉽게 성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적으로 승인되면서 성폭력으로 나타나거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몸이 자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외모에 대한 투자나 외모에 대한 집착을 초래하는 요소들이 등장하였다. 모든 인간은 성적인 존재로서 성이 우리 생활에 건강하고 가치 있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알고 이를 토대로 하여 건강한 관계 맺기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섹슈얼리티는 고정된 본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닌 개인이 위치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당대 인기 대중가요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속에 부여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양적 연구 방법으로 성 행동과 성 태도를 분석하는 것과 차이를 두어 성 행동과 성 태도를 시대의 구성안에서 사회성과 연결하여 의미를 도출했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의 선정과정에서 대중가요 음원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기곡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대중가요 분야의 다양한 장르의 가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좀 더 심도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갈수록 섹슈얼리티의 다양함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섹슈얼리티 연구와 더불어 다방면의 성교육 연구 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한다면 현존하는 학교현장에서의 획일적인 성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 연구분석 대상의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언을 견고히 받아들여 보다 적합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성이 인간 생활을 규정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부각되면서, 더 이상 고립된 영역의 성이 아니라 사회규범이나 역사적 상황에 의해 변화되는 사회구성물로서의 성을 다루었다. 가족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단위임을 인지하고 가족의 섹슈얼리티안에서 개인의 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 행동과 성 태도에 대한 연구를 다루었다. 후속연구에서 가족과 성문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성과 가족에 대한 연구의 연계성을 넓히고, 가족학에서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다양한 영역이 심도 있게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강희경 (1992). 성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아동의 성에 관한 지식 및 태도 변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효정, 이은주 (2007).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과 성태도의 차이.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3(3), 192-200.
- 권지현, 김영주, 문현정 (2000). 중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간호학회지, 3, 13-22
- 김기성, 최유준 (2014). 섹슈얼리티, 혹은 사회적 관계의 신체화- 싸이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 분석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2), 241-274.
- 김남희, 박유진, 정현숙 (2015).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성폭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심리행동연구, 7(2), 17-42.
- 김미경 (2000).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주 (2006). 성적자기결정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성적의사결정 능력 및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진 (2007). 한국대중음악 노랫말에서 나타나는 선정성기준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5(1), 11-15.
- 김창남 (1998).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향숙 (2001). 대학생의 애착· 사랑유형에 따른 성행동.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미애 (2000). 대학생의 성의식 행동에 대한 조사연구. 대전대학교 학생 생활연구, 9, 27-71.
- 남영주, 옥선화 (2000). 가족학에서의 섹슈얼리티 연구를 위한 접근방법 모색. 한국가족관계학회, 5(1), 113-136.
- 문미진, 최혜진 (1986). 청소년들과 그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대중가요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연구, 25, 14-25.
- 박소진 (2009).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경제와 사회. 84, 12-39.
- 박수선 (2004) 섹슈얼리티의 형성과정 및 개인적 의미 해석에 관한 질적 연구- 미혼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수선, 김명자 (2004). 미혼성인남녀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 42(5), 53-74.
- 박애경 (2000). 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책세상
- 박이은실 (2011). 급진적 섹슈얼리티 연구(sexuality study)재/구축을 제안하며. 여성이론, (25), 65-106.

- 박종원 (2020). NVivo R1 NVivo release 1: Matters of How to Conduct CAQDAS(컴퓨터를 활용한 질적 자료분석). 서울: 글로벌콘텐츠.
- 백선기, 김남일 (2006). 한국 대중가요의 ‘남성성’ 변화 추이와 이데올로기적 의미 변천연구: 김건모 노래가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60-376.
- 서경현, 이경순 (2002). 데이트폭력 경험자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 한국심리학회지, 7(3), 353-368.
- 서동진 (2005). 자기계발의 의지,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 담론을 통해 본 한국자본주의의 전환과 주체형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태제, 시기자 (2016).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손애리, 천정수 (2005). 전국 대학생의 성의식, 첫 성경험 및 성행동에 대한 성차. 보건과 사회과학, 18, 73-100.
- 양해림, 유성선, 김철운 (2001). 성과 사랑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옥선화, 정민자, 고선주 (1995). 결혼과 가족. 서울: 하우.
- 우근희 (2011).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연희 (2015). 대학생의 사랑유형과 성 태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가현 (1990). 성심리학. 서울: 성원사.
- 윤가현, 양동옥 (2017). 성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 이연수 (2017). 한국대중가요의 인기도에 따른 노래 가사 분석: 20001년~2015년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 (1998). 한국대중가요사. 서울: 시공사
- 이영미 (2002).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서울: 황금가지
- 이지연 (2002). 한국 대중가요에 나타난 낭만적 사랑.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충상 (2013). 한국 인기 대중음악의 시대별 분석: 1960년대~2000년대 인기 가요 및 가수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영 (2010). 섹슈얼리티와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대중 종합여성지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86, 181-219
- 임인숙 (2008). 한국 대중가요의 외모차별주의.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학술대회자료집, 128-144.
- 장희숙, 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 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8, 179-204.
- 전경숙 (2004). 대학생의 성지식, 태도, 행동 실태 및 성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민자 (2013). 신세대를 위한 성과 사랑. 서울: 대왕사.
- 정천기 (2002). 대중가요의 선정성에 관한 연구-가수 박진영과 싸이의 노래를 중심

- 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한솔 (2013).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영화 여성 의상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이미지.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승희 (2011). 이성 교제를 경험한 대학생의 성행동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심선희 (2006). 섹슈얼리티. 여성이론, (14), 227-240.
- 최경화, 박경, 정숙정 (2019). 남자 대학생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이 중적 성규범에 기반한 성경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2(1), 55-83.
- 최윤식 (2000). 1990년대 후반 한국영화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와 젠더 이데올로기- <정사>, <해피엔드>, <접속>, <인터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숙 (2009). Hendrick 다차원적 성태도 척도의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추병식 (2015). 탈근대의 성과 사랑. 경기: 정문사.
- 호선민 (2009).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보라 (2012). 대중가요 속에 나타난 노랫말과 음악과의 상관관계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인욱 (2007). 영화 텍스트 분석을 통해 본 섹슈얼리티와 가족: <처녀들의 저녁식사>와 <바람난 가족>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ck, U (2007). World at risk. Cambridge: Polity Press.
- Faller, K. C , 노충래 역 (2003). “아동성학대의 치료”. 서울: 학지사
- Giddens, A, 배은경, 황정미 역 (1996).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서울: 새물결.
- Illouz, E (2012). Why love hurts: A sociological explanation. Cambridge: Polity Press.
- Luhmann, N (1998). Love as passion: the codification of intima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xwell, J. (1996). Qualitative Research Design. Thousand Oaks, CA: Sage
- Michel Foucault, 이규현 역 (2004). 성의 역사: 삶의 의지. 서울: 나남
- Middleton, R.(1990). Studying popular music. Philadelphia USA: Open University Press.
- Shuker, R.(2012). 대중 음악 사전(Popular music: the key concepts). 장호연, 이정엽 공역. 서울: 한나래.
- Weeks, Jeffrey (1986). Sexuality. 서동진 외 역(1997).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서울:현실문화연구.

다음백과 (2020). 성 상품화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rts02s104>

동아일보 (1998). IMF후 일하는 여성이 늘었다. 1998. 6. 20 제2면.

문화일보 (2001). 박진영 6집 앨범 「게임」 섹스는 즐거운 놀이. 2001. 6. 26

멜론 차트 www.melon.com

비즈엔터 (2016) <http://enter.etoday.co.kr/>

‘스트리밍. 다운로드’ 음원서비스 큰손 된 10대

http://enter.etoday.co.kr/view/news_view.php?varAtcId=82441

지니뮤직 www.genie.co.kr

코리아클릭 (2019). 2019년 11월 기준 음원사이트 월간 순 이용자수

https://newsis.com/view/?id=NISX20191221_0000867672

쿠키뉴스 (2020). ‘N’번방 사태로 불붙은 아동성범죄..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005000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 디지털 시대

https://www.stop.or.kr/brdthm/boardthmView.do?brd_id=BDIDX_mV49maYF8r081nc63vW96G&srch_menu_nix=hn8TL907&cont_idx=475

YTN & YTN PLUS (2019). 버닝썬 사태 승리. 정준영..

https://www.ytn.co.kr/_sn/0117_201903131101155356_006

<부록> 연구대상 가요 138곡(1)

순번	년도	제목	가수
1	2000	RUN TO YOU	DJ DOC
2		흔들린 우정	홍경민
3		멍	김현정
4		오! 가니	컨츄리 꼬꼬
5		고백	박혜경
6		Day By Day	플라이 투더 스카이
7		Tears	소찬휘
8		잘됐어	샤넬
9	2001	Jumpo Mambo	쿨
10		Double	김건모
11		떠난 너	김현정
12		내게 와줘	YB
13	2002	미련한 사랑	JK김동욱
14		부탁해요	왁스
15		Loving You	김현철
16	2003	결혼을 할거라면	쿨
17		10Minutes	이효리
18		백설공주를 사랑한 일곱 번째 난장이	쿨
19		남자기 때문에	드렁큰타이거
20	2004	열정	SE7EN
21		The Way U Are	동방신기
22		사랑했잖아	린
23		너를 위해	H
24		HUG	동방신기
25	2005	둘이서	채연
26		아니	거미
27	2006	Hold The Line	조PD, 브라운아이드걸스
28		그남자 그여자	바이브
29		사랑했어요	SG워너비

<부록>- 연구대상 가요 138곡(2)

순번	년도	제목	가수
30	2006	아이스크림	MC몽
31	2007	유혹의 소나타	아이비
32		미워요	씨야
33		Love Love	에픽하이
34		Irony(아이러니)	원더걸스
35		Tell me	원더걸스
36		톡!톡!톡!	이효리
37	2008	So Hot	원더걸스
38		Love	브라운아이드걸스
39		Nobody	원더걸스
40		사랑과 전쟁	다비치
41		U-Go-Girl	이효리
42		One More Time	쥬얼리
43		Hey Mr.Big	이효리
44		나만 바라봐	태양
45		미워도 사랑하니까	다비치
46		남자 때문에	Joo
47	2009	I Don't Care	2NE1
48		Abrcadabra	브라운아이드걸스
49		Again & Again	2AM
50		쏘리쏘리	수퍼주니어
51		Lollipop	빅뱅, 2NE1
52		Hot Issue	4 minute
53		Diva	애프터스쿨
54		미스터	카라
55		My Man	다비치
56		내 귀에 캔디	백지영
57	2010	Bad Girl Good Girl	미쓰에이
58		oh!	소녀시대

<부록>- 연구대상 가요 138곡(3)

순번	년도	제목	가수	
59	2010	너 때문에 미쳐	티아라	
60		Go Away	2NE1	
61		Can't Nobody	2NE1	
62		외톨이야	씨애플루	
63		나 이런 사람이야(DJ DOC)	various Artists	
64		HUH	4minute	
65		뱅(Bang)	애프터스쿨	
66		Run Devil Run	소녀시대	
67		Magic	시크릿	
68		Breathe	미쓰에이	
69		본능적으로	강승윤	
70		잘못했어	2AM	
71		2011	내가 제일 잘 나가	2NE1
72			tv를 꺾네	리쌍
73	So Cool(쏘쿨)		씨스타	
74	UGLY		2NE1	
75	Be My Baby		원더걸스	
76	The Boys		소녀시대	
77	샤이보이		시크릿	
78	Bubble Pop		현아	
79	Black & White		지나	
80	2012	강남스타일	싸이	
81		나혼자	씨스타	
82		Twinkle	태티서	
83		1,2,3,4	이하이	
84		보여줄게	에일리	
85		충분히 예뻐	버벌진트	
86	2013	자니	프라이머리	
87		Give It To Me	씨스타	

<부록>- 연구대상 가요 138곡(4)

순위	년도	제목	가수
88	2013	이름이 뭐예요?	4minute
89		미친연애	범키
90		으르렁	EXO
91		GENTLEMAN	싸이
92		U & I	에일리
93		BAAAM	다이나믹듀오
94		오늘밤	린
95	2014	썸	소유, 매드클라운
96		Mr.Chu	에이핑크
97		something	걸스데이
98		사람냄새	정인, 개리
99		짧은 치마	AOA
100		예뻐졌다	박보람
101		Touch My Body	씨스타
102		노래가 늘었어	에일리
103		너 사용법	에디킴
104		감아	르꼬
105		Darling	걸스데이
106		HER	블락비
107		2015	LOSER
108	BAE BAE		BIGBANG
109	SHAKE IT		씨스타
110	EXID		위아래
111	심쿵해		AOA
112	겹		MINO
113	다른 남자 말고 너		미쓰에이
114	두 사랑		다비치
115	ME YOU		San E
116	음오아예(Um Oh Ah Yeh)		마마무

<부록>- 연구대상 가요 138곡(5)

순번	년도	제목	가수
117	2015	어머님이 누구니	박진영
118		취향저격	ikon
119	2016	CHEER UP	TWICE
120		너는 나 나는 너	지코
121		OOH-AHH하게	TWICE
122		넌 is 뭔들	마마무
123		Boys And Girls	지코
124		Why So Lonely	원더걸스
125		Dream	수지, 백현
126		2017	우주를 줄게
127	마지막처럼		블랙핑크
128	에라 모르겠다		BIGBANG
129	불장난		블랙핑크
130	New Face		싸이
131	2018	뚜두뚜두	블랙핑크
132		주지마	로꼬, 화사
133		Roller Coaster	청하
134		What is Love?	TWICE
135		Bad Boy	레드벨벳
136	2019	벌써 12시	청하
137		달라달라	ITZY
138		FANCY	TWICE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f Sexuality in the Lyrics of Korean Popular Songs - Focused on 2000~2019 -

Park, Hye-sook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Supervisor: Prof. Jung, Min-ja

This study began as there was a need raised for checking the culture and psychology of sexuality throughout Korean society, as it experiences a new controversy surrounding sex.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ity in the lyrics of Korean popular songs in the 2000s. Through the results, this study would emphasize that the individual's healthy sexuality would be important in creating a smoo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ce again. In addition, this study would bring into relief the necessity of social purification of sex culture so that sex can be harmonized in human life beautifully and healthily. Moreover, this study would provide the baseline material of the education for establishing adolescents' upright values of sexuality and forming the psychology of sex for the acquisition of gender sensitivity.

To achieve these purposes,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contents of sexuality represented in the lyrics of Korean popular songs, using qualitative analysis tool, NVivo R1. As for subjects, 600 songs ranked top 30 each year for 20 years from 2000 through 2019 were selected from the chart by period provided on Melon, an online music streaming websit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behavior, for sexual fantasy and desire, in the expressions of fantasy, there were expressions of fluttering feelings softly and emotionally alluded to things while in the expressions of desire, there were active expressions of desire to achieve by revealing one's desire naturally even in a short meeting achieved instantly. In the songs sung by female singers as narrators express their desires carefully, passively, and indirectly while those sung by male singers as narrators express active and direct sexual behaviors.

Second, of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behavior, in temptation and pleasure-orientation, raunchy and blatant expressions of sex and the body were revealed. The songs expressed the ecstatic feeling given by sexual pleasure by objectifying the body, indulged in pleasure and made bold expressions of making the listeners naturally imagine sexual intercourse. The songs sung by female singers as narrators objectified their bodies and expressed their attractiveness actively. The attractive body acted as competitiveness in achieving their desire in the expressions. The songs sung by male singers as narrators played with sexual language, expressed temptation like throwing a joke or objectified the female body, which made the listeners imagine sexual expressions. Because of the process of showing sexual behaviors plainly, they consisted of expressions that indirectly stimulated them or made them feel vicarious gratification.

Third, i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behavior, affair expressed the emotions of coping with the situation in which the partner was interested in the other opposite sex despite they were dating a person or caught for the fact of double dating. In the songs sung by female singers as narrators, there were expressions of mixed feelings about the partner's affair, but most were firm expressions in which they would never forgive that. On the other hand, in the songs sung by male singers as narrators, there were expressions of sad feeling painful and hurt by the partner's affair or a passive attitude in which they could not boldly end the relationship though they were aware of the affair.

Fourth, i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attitude, for sex role stereotype, there were expressions of asking men for responsibility and sense of mission, not to cry because they were men, not to express their difficulties, and to sacrifice for the family, instead.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contents of asking women to accept the saying that the late marriage is disadvantageous to women, to accept the customs of the social marriage system and the double standard to ask them to allow man's affair but not woman's and only to commit themselves to him and discriminatory expressions in which women should be passive and halfhearted in love and sexual expressions to be sweet-tempered women.

As for the contents that deal with a crack in the gender binary, there were expressions of the expressions of their attractiveness provocatively and confidently with sexual appetite and the active exercise of sexual subjectivity.

Fifth, i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attitudes, for devotion to the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benefit for each partner must be enough to make the continuation of the relationship worthy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the partners. And yet, there were expressions of unequal relationships in which they

devoted themselves, wishing the maintenance of the relationship, but the value between the partners does not make a balance but break, so they is not guaranteed with the partner's devotion. Toward the late-2000s, in the expressions of intimacy, there were more contents of expressing temptation and sexual pleasure than those of devotion to the relationship.

Sixth, to examine changes in sexuality by period from 2000 through 2019, in the expressions of sexual behaviors and sexual attitudes in the lyrics of Korean popular songs, starting 2010, the lyrics expressing sexual behaviors outnumbered those expressing sexual attitudes much. It is inferred that this phenomenon acts much more strongly that it goes beyond the existing sexual norms, in the formation of sexuality achieved centering around sexual behaviors. As for the causes for the change of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fantasy, desire, and pleasure-orientation in the expressions of sexual behaviors from the mid-2000s to the late-2000s, the strengthening of the function of pleasure of sex in the expressions of lov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sex, and the femininity functioning as a sexual subject entering post-modern era.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exuality in a person are affected by personal growth and family and social environments. Especially, in adolescents' digital environment utilizing sound sources, popular songs have powerful influence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studies of sexuality should continue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ecological systems of parents, school and friends affecting sexual behaviors and sexual attitudes.

Key Words: Sexuality, Sexual behavior, Sexual attitude, Popular song, NVivo R1